사회주의조선은

화목한 대가정

사회주의조선은

화목한 대가정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2(2013)년

차　례

머 리 말

《가화만사성》이라는 명언이 있다. 이것은 말그대로 가정이 화목해야 만가지 일이 다 잘된다는 뜻이다.

나라의 일도 이와 같다고 말할수 있다.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과도 같이 일심단결되여야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가 될수 있다. 이것은 과학이며 력사에 의하여 그리고 오늘의 조선의 현실을 통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조선인민은 그 누구보다도 이 진리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산다.

20세기 80년대말-90년대초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조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도 시간문제일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며 더구나 분렬의 고통을 겪는 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를 받고있는 조선이 사회주의를 고수할수 있으리라고 믿기 어려웠던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사회주의를 고수하였을뿐아니라 오늘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있다.

세상사람들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고 묻는다.

그 비결은 조선이 화목한 대가정처럼 일심단결된데 있다.

조선의 일심단결은 수령, 당, 군대,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로 굳게 결속된 일심단결이다. 이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어 조선은 력사의 준엄한 년대기마다에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오늘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고있다.

조선의 일심단결에 대하여 알고싶어하는 독자들을 위해 이 책에서는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과도 같이 일심단결된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심단결이 어떻게 이룩될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1. 화목한 대가정의 어버이

한 가정의 화목과 단합은 무엇보다먼저 부모의 정신도덕적높이와 부모가 가풍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많이 관계된다.

부모의 지성도와 도덕적높이, 정치사상적립장이 어떤가에 따라 가정의 정신세계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의 높이가 좌우되며 부모들이 가정을 어떻게 이끄는가에 따라 그 가정의 화목과 단합의 정도가 규정된다.

사회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작용한다고 볼수 있다.

수백, 수천만, 지어 수억을 넘는 각이한 사람들의 집단인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대가정의 화목은 령도자의 정신세계의 높이와 도덕기풍, 인민을 대하는 령도자의 관점과 립장, 인민에게 바치는 령도자의 사랑과 복무의 열도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조선인민은 위인적풍모를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베푸시며 인민에 대한 헌신에서 행복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어버이로 모셔왔다.

이 장에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적풍모를 그대로 지니시고 온 나라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꾸리시였으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어버이로 모신 조선의 긍지와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1) 어버이의 위인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였고 위대한 령도자이시였으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였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그이의 위인상을 글로 쓴다면 수백권의 책에도 다 담을수 없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을 해방하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신 위인이시였다.

선대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풍모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바치신 충정은 그 높이와 순결도에 있어서나 폭과 심도에 있어서 일찌기 그 어느 령도자도, 그 어느 위인도 지녀본적이 없는 고결한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의 태양이시고 자신은 태양의 전사라고 하시였다.

태양은 저 하늘에 높이 솟아있고 태양을 우러르는 전사는 땅우에 서있다.

뛰여난 천품을 지니신 위인이시건만 자신을 수령의 전사로 여기시는 여기에 선대수령에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열화같은 충정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충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있다.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몇몇 일군들을 부르시고 수령님께서 산원건설때문에 또다시 걱정하시였다고 하시면서 그 건설을 당에서 직접 맡아해야겠다고 하시였다.

산원건설은 녀성들의 건강문제와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래전부터 심려하여오시는 문제였다.

그러나 해당 부문 일군들의 무책임성으로 하여 산원건설은 한해 두해 미루어지게 되였고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는 여전히 덜어지지 못하였던것이다.

산원건설을 료해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올린 설계도면을 보시다가 침대수를 얼마나 예견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이 500대를 예견하였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그렇게 정한 근거가 무엇인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다른 나라의 경우 산원의 침대수가 대체로 200～300대, 제일 큰것이 400～500대이므로 가장 큰 규모에 기준하여 500대로 예견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꿀 값

평양산원이 개원되여 2년이 지난 주체71(1982)년 10월 21일이였다.

이날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평양산원에서 산모들에게 꿀을 주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평양산원이 개원되여 지금까지 산모들에게 꿀을 공급해준 정형에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장군님께서는 그건 좋은 일이라고 못내 기뻐하시며 그런데 꿀을 산모들에게 어떻게 주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그 일군은 잠시 머뭇거리였다.

장군님께서는 산모들에게 꿀을 주고 그 값을 받지 않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그제서야 일군은 국가에서 제정한 가격으로 돈을 받는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평양산원에서 산모들에게 꿀을 주고 그

그러자 그이께서는 우리 녀성들에게 산원을 지어줄바에야 세계에 없는 제일 큰 산원을 지어주면 안되는가고 하시면서 지을바에는 적어도 침대수가 1 000대이상짜리를 지어주자고, 어린이침대 500대, 어른침대 1 000대 합하여 1 500대로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 엄청난 수자에 어리둥절해있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평양의 녀성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 모든 녀성들이 불편없이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도록 침대수를 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밖에도 보육기대수를 적게 예견한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우리는 아직 아이들을 위한 일에 돈을 아껴본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산원설비로 필요한것을 다 차려놓고 돈을 계산해도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평양산원은 착공이 시작되여 1년도 되기 전에 준공하게 되였으며 온갖 진귀한 보석들을 드넓은 현관홀에 주단처럼 깔아놓고 해산방조만이 아니라 녀성들의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기지로,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로 꾸려지게 되였다.

준공된 평양산원을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하시며 만시름을 잊으신듯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만족해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안광에도 더없는 기쁨과 행복이 어리시였다.

값을 받는다고 하는데 잘못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예로부터 아이를 낳은 다음 꿀을 먹었다.

꿀은 산모의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주는데 아주 좋다고 한다.

그래서 당에서는 평양산원을 지어놓고 산모들에게 꿀을 보내주고있다. 당에서 산모들을 위해 꿀을 배려하여주었는데 그 값을 받으면 되는가. 이제부터 산모들에게 주는 꿀을 거저 주어야 하겠다.

수령님께서는 당에서 평양산원 산모들에게 꿀을 배려하여 주고있는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시였다.…

이렇게 평양산원에서 산모들에게 공급해주고있는 꿀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드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충정에 떠받들리여 평양산원만이 아니라 창광원, 인민대학습당, 빙상관이며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였다.

일반적으로 수령의 위대성을 론할 때 사상의 위대성을 론한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승패여부가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좌우되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상한 탐구력을 지니시고 일찍부터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학시절에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본성에 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시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업을 보좌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크고작은 사업들을 몸소 맡아수행하시면서도 맑스와 엥겔스, 레닌이 쓴 주요저서들을 더 깊이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시였다.

이 기간에 그이께서는 고전가들의 리론과는 구별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독창성을 도출해내시고 그것을 정식화하시였으며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은 수령론과 결부되여있고 다방면적이고 백과전서적이며 내용이 독창적이고 심오하며 체계가 정연하고 함축되여있으면서도 통속적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발표되여 1년도 못되는 사이에 5대륙의 144개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보급되였다.

그리고 한해동안에 이 로작과 그에 대한 해설기사들을 실은 세계출판물발행부수는 무려 28억 8 000여만부에 달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여주시였으며 현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로 더욱 풍부화하시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 인민들에게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시였기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서로서로 힘을 합쳐 자기 운명을 참답게 개척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백승에로 이끄신 탁월한 정치가이시였다.

탁월한 정치가, 령도예술가로서의 **김정일**동지는 열정의 화신이시고 무한대한 사업의욕과 완강한 혁명적전개력을 지니고계시며 통이 크시고 비상한 기억력과 해박한 식견, 선견지명의 통찰력을 지니신 분이시였다.

《정열없는 천재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위인들치고 정열가가 아닌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계신 혁명적열정은 력사에 이름을 남긴 그 어느 위인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말그대로 무한대한것이였다.

그이께서는 혁명가극창조사업을 지도하실 때 혁명가극들인 《피바다》에 나오는 노래 47편,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 나오는 노래 39편을 위하여 백수십여곡이 넘는 노래를 들어주시였고 선정하신 노래들에 대하여서는 가사 한편, 선률 하나하나를 훌륭하게 완성시켜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상한 사고력, 비범한 판단력, 무한대의 열정으로 한순간에 3～4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군 하시였다.

어느날 한 일군이 그이의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이께서는 문건을 보시며 록음기에서 울리는 노래를 듣고계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의 보고를 들으시며 반문도 하시고 의견도 주시였다.

사업보고가 끝났을 때는 노래도 다 들으시고 문건도 다 보시였다.

이윽고 수화기를 드신 그이께서는 노래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방금 보신 문건겉표지에 글을 써넣으시고 수표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문건을 검토하시면서 사업보고를 들으시고 노래를 들으시였던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가지 일이 끝나고 다른 일에 착수하는것이 보통 사람들의 사업방식이다.

이것은 사람의 사고와 판단력, 열정에도 한계가 있기때문이다.

그이께서 하루 24시간을 얼마나 긴장하고 정력적인 활동으로 보내시였는가 하는 사실자료 한가지만 여기에 더 적는다.

어느 하루의 일과였다.

여느날과 같이 집무실에서 새날을 맞으신 그이께서는 오전에 중요대상건설장에 나가시여 현지지도를 하시고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신채 오후 2시에 **김일성**경기장에 나가시였다.

집단체조시연회를 오후 5시까지 지도하여주신 그이께서는 곧바로 백화점을 찾으시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상품생산, 판매, 공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조선중앙통신사를 현지지도하시고 이곳을 나서시는 길로 수천세대 살림집을 동시에 짓는 한 지역주택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후 점심겸 저녁식사를 하시고 집무실에서 문건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밤 12시 30분에 **김일성**광장에 나가시여 중요행사훈련을 지도해주시고 새벽 3시경에 어느 한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일군들이 이제는 그만 돌아가자고 청을 올리였건만 그이께서는 이제 쉬면 얼마나 쉬겠는가, 새날의 첫 사업인셈치고 마저 보자고 하시면서 중요대회가 열릴 대회장을 돌아보시고 시내도 한바퀴 돌아보시고서야 집무실에 들어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흘러가군 하였다.

자연은 사람들에게 창조적활동의 낮과 휴식의 밤을 주었지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걷고 또 걸으시는 그이의 령도의 나날에는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한 준엄한 전쟁시기도 아닌 평화로운 보통나날에도 이처럼 매일매일을 사업으로 이어가시는 무한대의 열정과 정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특질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뛰여난 지략, 탁월한 령군술, 불굴의 의지와 담력을 지니고계시였다.

여기에 그이께서 지니신 뛰여난 군사적지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가지만 적으려 한다.

적과의 싸움은 군사적힘의 대결인 동시에 지략의 대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적들과의 대결에서 기발한 수로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승리의 국면을 열어나가군하시였다.

어느해 적들이 벌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이께서는 놈들이 최전방에까지 기여나오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군사분계선부근지역에로의 인민군부대들의 기동을 조직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인민군대의 기동이 시작되자 적들은 그 무슨 일이 터지는줄 알고 훈련비상으로부터 전투비상으로 이전하느라고 일대 소동을 피웠다.

적들은 인민군대의 기동을 공격을 위한 배비변경으로 타산하였던것이다. 결국 적들의 합동군사연습의 모든 계획은 헝클어지고말았다.

후날 이 일을 두고 적들자신이 의사들의 《오진》과 같은것이였다고 실토하였다.

미군부우두머리들이 조선의 군사력에 대한 토론을 벌려놓았는데 여기서 그들은 《북조선군수뇌부의 군사적특징을 3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째로는 판단이 정확한것이고 둘째로는 결심이 단호한것이며 셋째로는 일단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는 타격이 무자비한것이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군사적지략과 담력앞에 공포를 느끼였다고 한다.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적들과의 대결에서 백승을 떨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를 펴시여 인민군대를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온 나라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시였으며 전국요새화, 전민무장화로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시였다.

또한 강력한 국방공업으로 그 어떤 무장장비도 만들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의지로 강대한 적들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쥐시고 련속강타를 들이대시였다.

주체82(1993)년 미국과 남조선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핵특별사찰》을 강요할 때 그이께서는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시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시였다.

세상사람들은 이 중대한 조치를 《온 우주를 들었다놓은 사변》이라고 하였다.

당시 미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담당차관보는 《북조선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로 반격해오리라는것을 예측하지 못한 미국으로서는 실상 망신이다. 북조선은 단결력에 있어서나 군사력에 있어서 특수한 나라이기때문에 미국에 어떤 타격을 가해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적들의 핵위협에 대처하시여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만드시였다.

세계 관평들이 일치하게 조선을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지위에 놓은것은 군사력량에 대한 산수적계산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활무쌍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에 기초한것이였다.

피흘리는 전장에서 백전백승하는 장군도 명장이지만 포성없는 전쟁, 지혜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장군은 명장중의 명장이다.

그이는 탁월한 군사지략과 무비의 담력으로 포성없는 전쟁, 지혜의 전쟁에서 적들을 타승하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군사의 영재이시였다. 그이의 선군령장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여난 령군술은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담보였으며 조국과 민족, 인민의 안녕과 평화에 대한 담보였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어버이로 모신 크나큰 긍지에 넘쳐 그이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그이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지니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당과 국가활동을 이에 복종시키시였다.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으시고 활동하시는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인민의 요구를 풀어주시고 일군들이 특세를 부리거나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경계하시며 그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느 한 지방에서 의의있는 큰 공장을 도소재지로 흐르는 강상류에 건설할 계획이라는것을 아시게 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짓도록 하시였다.

그것은 그이께서 시민들이 강의 오염으로 생활상 불편을 느낄수 있다는것을 내다보시였기때문이였다.

어느해 여름 그이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아이들이 강에서 헤염을 칠가봐 마을로인이 강제방에서 경비를 서고있는것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많이 해야 몸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튼튼하게 자랄수 있다고 하시며 그 강기슭에 수영장을 건설해주도록 하시였다.

어느 한 광산로동자들이 흑연가루에 늘 얼굴이 까매서 일한다는것을 아시고는 해당 일군들이 로동자들앞에서 사죄하고 즉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신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그이의 풍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성품은 권력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가깝게 만든다.》는 격언처럼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그이의 인민적풍모는 언제나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그이를 어버이로 부르며 품고있는 생각도 다 말하고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였던것이다.

화목한 대가정, 조선의 일심단결은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풍모를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령도자로 모시여 더욱 튼튼히 담보되고있다.

로동자들에게 사죄하라

주체97(2008)년 12월 24일 추운 겨울날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용해공식당에도 들리시였다.

식사칸에 약수가 나온다는 사실도 기쁨이였고 용해공들의 질높은 식사차림도 그이의 기쁨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그이께서는 문득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용해공식당 식사칸의 온도가 낮아 춥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로동자들이 추운데서는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로동자들이 추운데서 식사를 하는것을 보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것은 대단히 잘못되였습니다.》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로 하여금 커다란 자책에 잠기게 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 로동자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해주는것만도 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식사칸의 온도에 대하여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자기들이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기업소지배인과 당책임비서가 로동자들을 모여놓고 사죄하며 식사칸의 온도를 양력설까지 정상상태로 올려놓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일군들은 로동자들앞에 사죄하였으며 용해공들에게는 훌륭한 식사칸이 마련되게 되였다.

2) 어버이의 좌우명

좌우명이란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삼는 확고부동한 신조를 의미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좌우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시였던 이민위천의 리념이였다.

이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것이다.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 좌우명에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 즉 인민이 이 세상의 주인이며 영원한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은 무엇보다먼저 인민대중을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존대하는 관점과 립장에서 표현되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을 사회의 주인으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으로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인민대중은 가장 힘있고 발전된 존재로서 사회관계를 맺고 사회적재부를 창조해나가는 주체이다, 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발전하는데 따라 사회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발전해나가는것이 합법칙적이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가 이루어질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사회와 그 발전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된다고 밝히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다음으로 인민을 전지전능한 존재,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로 보는 관점과 립장에서 표현되였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못해내는 일이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는 인민대중이다, 인민이야말로 세상만사를 창조하고 움직이는

하느님이라는 여기에 그이의 인민숭배사상의 다른 하나의 본질적내용이 있다.

실제로 력사발전의 그 어느 시대의 창조물이든 아름답고 훌륭한 창조물들은 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힘의 산물이다.

천수백년이 지난 오늘까지 변색없이 금방 살아움직이는듯 한 환각을 안겨주는 조선의 신비로운 고구려무덤벽화도 인민이 창조한것이며 하나의 무게가 평균 2.5t, 최고 16t이나 되는 화강석 250만개를 쌓아 근 150m의 높이로 건설한 고대에짚트의 피라미드도 당시 인민들이 쌓은것이다.

오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우주정복의 길에 들어서고 콤퓨터기술의 개발로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경제의 현대화, 과학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이 모든것도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을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가진 전지전능한 존재로 내세우심으로써 그들을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부터 존대와 숭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것을 근본원칙, 근본방법으로 삼으시고 일관하게 관철해나가시였다.

그이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는 특히 자기인민을 훌륭하고 위대한 인민으로 여기고 내세우시는데서 표현되였다.

자기 인민에 대한 그이의 이 열렬한 숭배정신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 강렬한 지향으로 승화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좌우명인 이민위천의 리념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가장 힘있는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로 될수 있었다.

3) 믿음과 사랑의 정치

화목한 대가정과도 같이 수령, 당, 군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의 일심단결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이다.

예로부터 믿음과 사랑은 정치가의 기본자질로 일러왔다. 그래서 정치가들치고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론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인민우에 군림하여 인민을 통치하는 반동통치배들조차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웨치군 하였다.

그러나 인민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실현한 정치가는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베푸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그이의 정치는 인민대중중심의 정치이며 그 기본원리는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였다.

일반적으로 믿음과 사랑은 사람을 결합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게 되면 개개인의 요구와 리해관계, 개개인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하나로 합치고 결합시키게 된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의 인력에 끌리여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는것은 우주계의 자연법칙이다.

그러나 온 사회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에 대한 수령의 믿음과 사랑의 견인력에 의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혼연일체이다.

그러므로 인민에 대한 수령의 믿음과 사랑은 수령과 인민대중이 운명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원천으로 된다.

(1) 믿음의 정치

인민에 대한 수령의 절대적인 믿음은 수령과 인민대중의 공고한 결합을 이루게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믿음은 사랑과 의리를 낳는 정신적원천이며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동지적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며 믿음에 기초하고있다.

믿음이야말로 사랑의 전제인 동시에 사랑의 중요한 표현으로 된다.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동지들에게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믿음을 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어느해 2월에 있은 일이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나는 동무들을 믿는다, 믿는다는것은 나의 마음전부를 동무들에게 맡긴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마음전부를 맡기는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중에서도 가장 진실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다.

력사의 갈피를 더듬어보면 믿음에 대한 제나름의 견해들이 있었다. 실례로 나뽈레옹1세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나도 그대들을 믿겠노라.》고 했고 중국의 문무황제는《경이 나를 저버리지 않으면 내 또한 경을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 의심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믿음은 이와 전혀 다른것이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그이의 믿음은 믿음을 받기전에 먼저 믿음을 주는것이였으며 동지를 자신처럼 믿고 마음전부를 통채로 맡기는것이였다.

동지들에 대한, 인민들에 대한 그이의 믿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심을 모르는 영원한 믿음이며 조건과 환경이 변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였다.

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믿음은 충신의 대부대를 낳고 일심단결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정치에 구현하시여 믿음의 정치를 펼치시였다.

믿음의 정치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그들모두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정치이다.

력사에는 《덕치》, 《법치》를 제창하거나 《박애》, 《평등》을 표방하거나 《대동단결》을 고창하는 등 다양한 리념의 정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통치자중심의 정치로서 인민대중을 정치의 대상으로 한것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믿음의 정치는 전체 인민대중을 스승으로, 인민대중의 요구를 가치의 기준으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힘의 원천으로 하는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정치였다.

그이의 믿음의 정치는 무엇보다먼저 인민대중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신데서 표현되였다.

그이께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였다. 그것은 조선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구성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다 군인들과 로동자, 농민, 근로지식인들, 인민의 존경을 받는 일군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렇듯 조선의 정권은 철저히 인민을 위한 정치를 실시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선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였다.

해당 정치가 진보적성격을 띠고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려면 가장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적집단을 핵심적인 정치적력량으로,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야 한다.

조선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회적집단은 인민군대이다.

일반적으로 혁명군대라고 하면 사회의 다른 집단들과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징, 기질을 가진다.

혁명군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을 군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조직된 특수한 사회적집단이다.

혁명군대는 적들과의 대결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투활동을 한다.

이 전투활동은 격렬성과 간고성, 희생성으로 특징지어진다.

혁명군대는 또한 그가 수행하는 사명과 임무의 중요성으로부터 정연하고 째인 조직체계를 가지게 되며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다.

혁명군대의 이러한 특성은 그로 하여금 사회의 다른 집단들보다 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기질을 가지게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더욱 강화된 조선의 인민군대는 참으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대이다.

조선의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성새, 방패가 되여 결사옹위하고 영웅적희생정신으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한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조국애와 사회주의수호정신도 강하며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다.

조선의 인민군대는 집단주의정신도 높고 조직성과 규률성, 단결력도 제일 강하다.

이러한 인민군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주력군으로, 혁명의 기둥으로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였다.

자기들을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시는 그이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새긴 인민군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전선에 달려나가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군 하였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지니고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혁명임무수행에서의 대담성과 용감성, 대중적영웅주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성, 관병일치를 비롯한 혁명적인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따라배우는 본보기로 되였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신 령도자의 믿음은 인민군대

뿐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 믿음은 온 사회에 군대는 인민을 돕고 인민은 군대를 돕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수령, 당,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게 하여 조선을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민들모두를 사회의 주인으로, 혁명의 주체로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였다.

주체 97(2008)년 12월 2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이 기업소로 말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후 조국땅에 개선하시여 그리운 고향집에도 들리시기전에 찾으시였던 기업소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기업소로동자들을 만나시여 해방된 이 땅에서 동무들이야말로 새 조선건설을 떠메고나갈 나라의 기둥이고 혁명의 령도계급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제가 마사버린 제강소를 일떠세우실 방도를 의논하시였다.

주체45(1956)년 12월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기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을 천리마운동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때는 나라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 때였다.

우선 미제가 감행한 침략전쟁의 후과로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게다가 대국주의자들은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못마땅해하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해나서려 하였다.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도당을 사촉하여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였다.

이 엄혹한 시기에 강선제강소(당시) 로동계급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에게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알려주시고 이러한 정황에서 우리 당은 동무들, 로동계급을 믿는다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힘을 합쳐 이 엄혹한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그이의 호소따라 총궐기하였다.

그들은 그해 6만t능력의 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여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았다.

전국의 로동계급은 강선제강소로동계급이 일으킨 천리마운동에 궐기하여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였다.

바로 강선의 그 로동계급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2월의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이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초고전력전기로를 보아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강선이 들끓으면 온 나라가 들끓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강선의 로동계급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설것을 호소하시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그이의 믿음에 보답할 굳은 맹세를 다지면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킬것을 온 나라에 호소하였다.

이 호소에 호응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일떠섰다.

오늘 조선의 로동계급은 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혁명의 기본동력의 하나로 믿고 내세워주시였다.

해방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을 실현하시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였으며 계속하여 농업협동화를 실현하시여 농민들을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 당당히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민들을 선군시대 나라의 주인으로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며 주인된 본분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조선의 서해안지대에 자리잡고있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은 그이께서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전국의 모범으로 내세워주신 농장이다.

그이께서는 이 농장을 찾으실 때마다 언제나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시며 그 방도까지 하나하나 의논해주시였으며 그들이 성과를 거두면 더없이 기뻐하시며 계속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고무해주시였다.

이것은 비록 미곡협동농장에만 한한 일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으실 때마다 그곳 협동농장들에 들리시여 농장원들의 살림집도 돌아보시고 농사정형도 알아보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였다.

령도자의 그 믿음과 사랑속에 오늘 온 나라 전체 농장원들이 농촌의 주인,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자라나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지식인들을 믿고 내세워주시였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한결같이《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대한 긍지높은 대답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역만리로 흩어져갈 때 조선의 지식인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회주의압살책동에 맞서 과학의 최첨단을 돌파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사상문화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옹호보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믿음의 정치는 다음으로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까지도 다 한품에 안아 하나의 대가정속에 품어주시는데서 표현되였다.

조선은 단일민족이면서도 사회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주민구성은 다른 나라에 비할바없이 복잡하였다.

40여년간이나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일제기관에 복무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나라가 분렬되고 전쟁까지 치르다보니 북과 남으로 가족들이 흩어지고 민족을 반역한자들, 본의아니게 외세와 반동들에게 복무한 사람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에서 계급투쟁을 첨예화시켰고 사람들사이에 불신과 오해, 불화와 대립을 조성하게 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분렬하여 통치하라는 제놈들의 식민지지배수법대로 조선을 분렬시키고 분렬된 조건을 리용하여 민족내부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여 조선에 대한 저들의 지배를 손쉽게 실현하려고 책동하였다.

외세에 의하여 조성된 이 비정상적인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그 존망과 관련된 근본문제라 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사태의 기본원인은 외세에 있다고 하시며 외세를 의식적으로 도와주고 인민들을 학살하며 악질적인 만행을 감행한자들은 처벌하되 밥벌이를 위해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추종한 사람들은 다 관대하게 차별없이 대하여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믿음으로부터 내리신 그이의 이 단호한 용단은 인간중시사상인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는 과정에 생활체험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신념에 기초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믿음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드팀없이 이어졌다.

그이께서는 사회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의 성분과 사회정치생활평가에 대한 새 기준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람들의 성분이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그것이 사람평가의 결정적요인으로 되여서는 안된다는것, 사람들의 계급적출신성분이란 결국은 사상성분이라는것 그리고 부모들이 지은 죄를 그 자식들이 넘겨받아 책임질수 없다는것, 그런것만큼 그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때 성분이나 정치생활경위를 가지고 문제시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이 세운 공로는 공로대로 정확히 평가해주어야 한다는것,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편협하지 말아야 하며 아량있고 도량이 넓어야 한다는 위대한 믿음의 정치철학을 제시하시였다.

그이의 믿음의 정치는 지난날 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하고 부모들이 지은 죄때문에 언제나 그늘져있던 사람들의 가슴에 새 생활의 활력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모두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정치적생명을 안겨준

어버이로 모시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이를 충직하게 받들었다.

그이의 믿음의 정치는 조국과 민족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새 삶을 지향하여 나올 때에는 그들도 넓은 한품에 안아주시며 재생의 길을 열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민정장관》을 한 안재홍,《한독당》부당수였던 조소앙,《과도립법의원》이였던 오하영 그리고 남조선괴뢰군의 군장성이였고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에 참가하였으며 후에 《외무부장관》을 하였던 최덕신을 비롯하여 반공일선에서 맹활약을 한 사람들까지 다 한품에 안으시여 애국애족의 길에 내세워주시였고 그들이 사망한 다음에는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여 영생의 삶을 빛내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이렇듯 대해같이 넓은 도량과 믿음은 민족이 있고서야 사상도 있고 리념도 있다는 조국과 민족을 최우선시하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뜻에 바탕을 두고있었다.

이러한 믿음의 정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결속되여 일심단결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게 하였다.

믿음의 표시로 되돌아온 권총

언제인가 혁명사적부문의 일군들은 항일혁명투사 최현동지에게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사용하던 권총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래서 최현동지를 찾아가 후대교양에 꼭 필요한 사적물이니 그 권총을 희사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안돼》,《안돼》하면서 거절하던 투사도 다섯번째만에는 끈질긴 사적부문일군들에게 끝내 지고말았다.

《할수 없지, 가져가오.》

떨리는 손으로 철궤안에서 권총을 꺼내든 최현동지는 윤기나는 권총

을 오래도록 쓸어만지다가 쑥 내밀었다.

《자, 가져가시오. 내게 있던 마지막 재산이요. 교양사업에 잘 써주시오.》

그리고는 사적일군들이 권총을 가방에 넣는것을 차마 볼수 없었던지 침통하게 이그러진 얼굴을 돌리고말았다.

이 사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후에야 알게 되시였다.

그이의 눈앞에는 불현듯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에 들린 최현동지가 목갑총을 베고 자던 모습이 선히 떠오르시였다.

그때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최현동지에게 이렇게 물으시였다.

《… 왜 베개를 베지 않고 목갑총을 베고 자나요?》

《오래전부터 붙은 습관이지요. 어렸을 때는 목침을 베고 잤고 유격대에 들어가서부터는 내내 총을 베고 잤지요. 그래서 지금도 목갑총을 베야 잠이 잘 오지요.》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였으니 목갑총을 베고 자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아니지요. 해방은 되였지만 38° 선이라는게 생기고 남조선의 리승만이라는 놈이 우리를 먹겠다고 자꾸 불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내 팔자는 평생 베개를 베고 잘 늘어진 팔자가 못된가 봅니다.》

《목갑총을 베고 자는 투사》, 이 말은 최현동지의 대명사이기도 하였다.

그러니 그가 정들고 손때묻힌 그 권총을 내놓고 얼마나 허전해하랴.

한 일군을 부르신 장군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최현동지에게 권총을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최현동지에게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하고 후대교양을 위해 권총을 바쳐주어 고맙다는 나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에서는 최현동지의 권총을 비롯한 다른 유적, 유물들을 앞으로 전시하기로 하였기때문에 도로 가져왔다고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동하면 제 바지라도 벗어주는

최현동지의 성미에 한번 내놨던 권총을 다시 받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총은 로투사의 젊은 혁명동지가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해줄것을 바라는 믿음의 표시로 최현동지에게 다시 보내주는 권총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받을것입니다.》

얼마후 그 일군은 최현동지에게 권총을 전달하였다.

최현동지는 권총목함을 열어보고 펄쩍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내 총이요.》

《아닙니다.》

《내 총이란데두.》

《최현동지가 일단 바쳤으니 이건 당에서 보내준 총입니다.》

일군은 그에게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해주었다.

자기의 총이면서도 자기의 총이 아닌 권총,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권총을 새로운 눈으로 보며 투사는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2) 사랑의 정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믿음의 정치는 곧 사랑의 정치로 이어졌다.

믿음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을수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 믿음이 있을수 없다.

인민에 대한 그이의 사랑은 믿음과 함께 온 사회를 일심단결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게 하는 원천이였고 원동력이였다.

사랑은 사람을 믿고 귀중히 여기는 사상감정이며 서로 위하고 헌신하는 마음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인민을 믿고 귀중히 여기며 인민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마음,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고결한 정신이다.

인민에 대한 참다운 사랑은 인민을 단합시키고 그들의 단합된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원동력으로 된다.

사랑은 그 고상함과 그가 발휘하는 위력으로 하여 누구나 그것을 갈망하여왔으며 사랑에 대한 제나름의 견해를 내놓았다.

어느 한 나라의 륜리학자는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질서한 사랑이 아니라 조직적사랑이며 그것은 미신적, 환상적사랑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랑이며 그것은 위선적, 타산적사랑이 아니라 용감한 혁명적사랑이며 그것은 부분적, 순간적사랑이 아니라 전체적, 항구적사랑이며 그것은 입안에서만 성립되는 언어적사랑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적사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책에 쓰기를 자기는 그런 참된 사랑을 지닌 위인을 찾아보려고 력사적인 인물들과 이름난 정치가들의 행적도 더듬어보고 종교인들의 세계에도 눈길을 돌려보았으나 모두 허사였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가 바라던 《사랑의 신》은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수 없는 하나의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잘못 알았다. 그런 위인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참다운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고그린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시였다.

여기에 남조선감옥에서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34년간이나 옥고를 치르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 리인모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랑을 노래한 한편의 시구절을 담는다.

…
내 숨쉬는 공기에
내 몸에 비치는 해빛에
당신의 사랑이 꽉 찼습니다
내 집 앞방에도 당신의 사랑
뒤방에도 당신의 사랑
웃층에도 아래층에도

당신의 사랑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
제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큰 사랑도 있는가고
사랑밖에 밀려났던 이몸
70고개를 넘어선 오늘에야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늦게나마 알고 웁니다
…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열렬한 사랑의 인간 당신은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시옵니다

이 한편의 시구절에는 리인모 한사람만이 아니라 조선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지켜주시며 보살펴주시는 그이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전인민적인 감사와 칭송의 감정이 슴배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은 모든 인민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생사를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고 참된 인간적존엄을 안겨주는 값높은 사랑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아름답고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참된 인간으로 키워주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는 위대한 사랑이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이 위대한 사랑을 정치에 구현하시여 사랑의 정치를 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정치는 무엇보다먼저 조선인민에게 귀중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빛나는 삶을 누리게 하여주신데서 표현되였다.

그이께서는 우선 모든 인민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였다.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다.

육체적생명이 생명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다.

사람이 사회정치적생명의 요구를 떠나 육체적생명의 요구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생활과 다를바없는 생활로 될것이다.

사람의 육체적생명은 부모가 주지만 사회정치적생명은 수령이 안겨준다.

그것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사상을 제시하여 사회정치적생명체에 영양소를 주며 당을 비롯한 정치조직들을 내오고 거기에 각계각층을 망라시켜 정치적생명의 터전을 마련해주며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사회정치적생명의 활동을 보장해주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정립체계화하시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여 인민대중에게 정치적생명의 영양소를 안겨주시였다.

주체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 주체사상의 본질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원리,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을 밝혀줌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깨닫고 자기 운명을 참답게 개척해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근로단체들을 튼튼히 꾸리여 인민대중에게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를 마련해주고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여기에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을 적극 받아들여 그들에게 조선로동당

원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계급별, 계층별로 되는 근로단체조직들에 망라시켜 그들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도록 해주시였다.

근로단체조직들은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이다.

근로단체들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대중적정치조직이다.

이러한 근로단체의 한 성원으로 되는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인간으로 살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시고 빛내여주시였다.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았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유지되고 빛나는것이 아니다.

사회정치적생명은 그 모체인 당조직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을 통하여 유지되고 보호되며 빛나게 된다.

그이께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키워주고 보호해주도록 그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의사가 인간생명의 기사라면 당일군은 정치적생명의 기사이다, 당일군들에 의하여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이 참답게 빛날수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일군들이 어머니심정으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아끼고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느날 그이께서는 중앙기관 당일군들의 당생활정형을 알아보시다가 어느 한 당조직에서 결함을 반복하고있는 몇명의 당원들에게 책벌을 주려고 한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책벌을 받을 일군들이 가슴아파할것을 생각하시며 잠못드시던

그이께서는 그 기관 당책임일군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일군에게 동무들이 당원들의 결함이나 캐고 그들을 처벌이나 해서는 정치적생명의 기사가 될수 없다, 처벌하기는 쉽다, 그러나 당원들에게 책벌을 주면 그들의 정치적생명에 흠집이 생긴다, 설사 흠집은 아물어도 자리는 남는 법이다, 동무들은 이것을 가슴아파해야 한다, 물론 과오가 엄중하면 책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것은 이악하게 달라붙어 꾸준히 교양하는것이다고 하시며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새날이 밝아오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 일군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다문 얼마간이라도 휴식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잠을 덜 자면 뭘합니까,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진 당일군들은 남보다 잠도 덜 자고 새벽도 먼저 맞아야 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인민들에게 죽어서도 영생하는 참된 삶을 주시였다.

영생하는 참된 삶은 예로부터 인간의 절절한 념원으로 되여왔다.

사람들의 이러한 념원은《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에도 깃들어있다. 그러나 영생하는 참된 삶은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전에서 목숨바쳐 싸운 혁명가들과 애국자들,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피와 땀을 바친 위훈의 창조자들, 그들이 세운 공적과 고결한 혁명정신은 인민의 참다운 령도자의 품속에서만 보석처럼 빛나고 영생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친 혁명렬사들과 애국렬사들이 길이길이 영생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렬사들과 영웅전사들의 모습이 생동하게 후세에 전해질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군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영웅전사들을 위하여 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을 훌륭히 건립하도록 하시고 그들이 나서 자라며 일한 고향과 학교, 공장과 인민군부대들을 그들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그들의 공적을 출판물들과 예술작품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생된 전사들의 영생을 위하여 그들의 공적과 위훈을 값높이 평가해주시고 자랑스럽게 내세워주도록 하시였다.

조선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영웅관에 공화국영웅의 모습으로 빛나고있는 간호원 안영애는 197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영웅이 아니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언제나 맡은 전투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전투원으로 전우들의 사랑을 받은 전사였다.

그는 적기의 맹폭격속에서 불붙는 병동에 뛰여들어 30여명의 부상병들을 업어내왔으며 그 과정에 복부와 흉부, 왼팔에 관통상을 입고 숨을 거두었다.

그때로부터 20여년세월이 지나간 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간호원 안영애를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와 혁명가극《당의 참된 딸》을 만들도록 하시고 창조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그리고 그의 혁명정신과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여 공화국영웅으로 내세워주시였다.

그의 고향이 남녘이여서 영웅칭호를 수여받을 사람이 없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가슴아파하시며 그의 금별메달과 영웅증서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소중히 보관전시하여 조선인민모두가 그의 혈육이 되도록 하시였다.

조선에는 영웅이 많다.

이것은 당과 수령, 조국과 민족, 인민을 위해서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드는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이 낳은 자랑찬 현실이다.

동시에 이것은 군대와 인민이 발휘하는 혁명적투쟁정신과 위훈을 더없이 장하게 여기시고 최상의 영예를 안겨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은정의 빛나는 결실이다.
그이께서는 영웅전사들의 넋과 위훈이 후대들의 넋속에 줄기차게 살아 빛나도록 하시여 렬사들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렬사들의 후손들이 부모들의 혁명정신과 위훈을 존중하고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그 하많은 이야기들중에 한가지만 여기에 적는다.
1930년대 국제당잡지《공산국제》와 중국신문《구국신보》가《어린렬녀》로 대서특필한 애어린 항일렬사 김금순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부모들을 다 일제놈들에게 학살당한 김금순소녀는 9살때 아동단원으로 련락임무를 수행하다가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 사형당하였다.
그에게는 살아남은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년간이나 애쓰시여 어린 항일렬사의 남동생을 찾아내시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도록 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를 자주 데리고 다니시며 사업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엄하게 비판도 하시면서 그를 유능한 당일군으로 키워주시였다.
그리고 자신께 좋은 옷감이 하나 생겨도 그것으로 그의 옷을 지어 입히시며 애지중지 키우시였다.
그가 뜻밖에 불치의 병에 걸리였을 때에는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잠도 오지 않고 일감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온갖 치료대책을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의 자녀들이 참된 혁명가로 자라나도록 세심히 돌봐주시였다.
그이께서 혁명렬사가족들과 그 유자녀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보살펴주시며 부모들의 뒤를 믿음직하게 이어가는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주신 이야기는 끝이 없다.
그이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은 항일혁명렬사유자녀들만이 아니라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전사들,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순직한 수많은 혁명렬사들의 후손들에게도 뜨겁게 미치였다.

이처럼 참다운 사랑의 정치가 있어 조선인민은 인간의 참다운 생명인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이며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의 정치는 다음으로 조선인민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워주시는데서 표현되였다.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은 인민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데 있으며 인민에 대한 최대의 죄악은 인민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창조적능력의 발전을 말살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주고 그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정치야말로 참다운 사랑의 정치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선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시고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워나가시였다.

인간의 높이는 사상의 높이이며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인간이 지녀야 할 참다운 사상의식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인 사상의식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의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가장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는 사상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혁명의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진리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 조선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조선혁명의 요구와 조선

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더욱 강화되고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저들의 수정주의적로선을 다른 나라들에 내려먹이려고 책동하던 1970년대말에 그이께서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전례없이 우심해지고 일부 사회주의나라 집권당들에서 현대사회민주주의가 대두하여 사회주의제도자체를 변질과 붕괴에로 몰아가던 1980년대 후반기에는 고전적로작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를 발표하시여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력사의 역풍이 휘몰아치며 조선혁명이 류례없는 도전에 직면했던 1990년대에도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난관을 맞받아 과감히 전진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 모든것을 제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니도록 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 혁명을 령도하여오시는 전력사적과정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드시고 전체 인민의 심장속에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신념을 확고하게 심어주시면서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 위력은 류례없이 간고한 시련속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1990년대에 높이 발양되였다.

조선의 북변에 있는 자강도인민들은 엄혹한 경제적난국을 타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면 무엇보다먼저 전기문제부터 풀어야 하며 그리자면 조선에 풍부한 수력자원을 리용하여 대규모의 수력발전소들과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자체의 힘으

로 수력발전소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자그마한 발전소들은 세멘트가 없으면 나무와 돌로 언제를 쌓았으며 띄우개식발전소도 만들었다.

전국도처에서 이 모범을 따라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려 한해동안에 많은 발전능력을 새로 조성하였다.

혁명실천을 통하여 조선인민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야말로 자기운명을 참답게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며 인간완성의 자양분이라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바로 이 숭고한 사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해주시고 높이 발양시켜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의 정치야말로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라는것을 조선인민은 절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사람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키워주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실현시키시였다.

창조적능력은 새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능력과 자질이다.

한 나라 인민의 문명정도와 창조력의 높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주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제된다.

그이께서는 전반적11년제무료의무교육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나가시면서 나라의 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교복, 학용품을 나라에서 공급하는 제도를 드팀없이 실시하도록 하시고 학생들의 통학조건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도시를 건설할 때는 어린이들이 큰 길을 건너다니는 일이 없도록 주택구획마다 학교를 앉혀놓도록 하시고 농촌에는 리와 부락에까지 중학교와 소학교를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바다가운데 있는 등대섬의 2～3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분교를 세워주도록 하시였다.

어느해인가 몸소 새 학년도준비사업을 료해하시던 그이께서는 조선의 서해바다에 있는 한 섬에서 나어린 3명의 소학교 학생들이 집을 떠나 뭍에 나와 공부한다는것을 아시고는 그애들을 위해 섬에 학교를 세워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등대섬학교들이 다른 학교들과 같은 수준에서 교육사업

을 진행할수 있도록 교육비품들을 충분히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바다에 떠도는 얼음장때문에 배길이 막혀 새학기의 교재와 학용품이 제때에 섬에 가닿지 못할 때는 해군함정을 동원시켜주시고 겨울방학동안 뭍에 나왔던 교원이 얼음이 풀리지 않아 개학날이 다 되여도 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것을 아시고는 직승기까지 보내주시여 새학기 첫 수업을 보장하게 하시였다.
이처럼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이 있어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은 도시학교나 산골학교, 2～3명의 학생을 가진 등대섬학교나 할것없이 꼭같은 교육조건을 보장받으며 누구나 배움의 리상을 꽃피울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11년제의무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고등교육과정을 거쳐 현대적인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체득한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자라나도록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조선에는 고등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서있다.
어느해인가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그곳 고등과수전문학교 통신반에서 공부하도록 해달라고 제기한 일이 있었다.
이것을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근 2 000명이나 되는 그들을 다 통신교육망에 망라시켜주도록 하시고 이동강의를 위한 승용차까지 보내주시였다.
조선에서는 정규대학뿐아니라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이 도처에 서고 여기에서 광범한 근로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는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북변에 있는 룡양광산의 어느 한 갱의 광부들이 모두 일하면서 공업대학과정을 마치고 다같이 기사의 자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친히 자신의 명의로 감사문까지 보내주시였으며 그 광산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경험을 온 나라에 널리 소개하여 본받도록 해주시였다.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고 기사로 자라난 조선의 근로청년들이 오늘 현장에서 기술혁신의 선구자로 최첨단돌파를 위한 기치를 들고나가고있다.

뽑혀진 콩크리트기둥

창광거리 2계단건설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주체74(1985)년 3월 15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건설현지에 나오시였다.

현장을 돌아보시며 살림집건설정형을 료해하시던 장군님께서는 주택지구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류다른 건설대상을 보시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짓는가고 물으시였다.

《차고를 짓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차고를 왜 주택지구에다 짓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차고를 짓고 주변에 울타리를 높이 둘러치기때문에 주민생활에는 크게 불편이 없을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장군님께서는 차고를 짓는 옆에 새로 건설한 고층살림집을 바라보시며 저 살림집이 몇세대짜리인가고 물으시였다.

《800세대짜리입니다.》

장군님께서는 그러면 아이들이 2 000명이 넘겠는데 집뒤에다 저렇게 차고를 지으면 숱한 아이들이 어데 가서 놀겠는가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병풍식살림집뒤에 짓던 차고자리는 마당을 넓게 조성하여 어린이놀이터를 멋있게 만들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는 차고를 옮기는데 제기될것이 없겠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짓던 차고를 그냥 건설하고 살림집과 차고사이에 아이들의 놀이터를 잘 꾸려주었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면서 다 세운 기둥을 뽑아버리기가 정 아쉬운게라고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병풍식살림집뒤에는 마당도 만들고 공원도 멋있게 꾸려주어 어린이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고 다 거기에 와서 놀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저것 생각할것없이 콩크리트기둥을 다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넓은 마당을 닦아주자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해방전에 공화국북반부에는 대학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오늘 조선에는 많은 대학들이 일떠서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조선이 달성하려고 하는 교육의 목표이다.

조선에는 학교에 적을 둔 학생들뿐아니라 모든 인민이 학습하는 전민교육체계가 서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과 온 사회에 정연한 학습망을 꾸려주시고 여러가지 재교육체계를 세워주시여 인민들이 누구나 일생동안 학습을 계속할수 있게 해주시였으며 그 모든 교육이 전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실현되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은 전민교육의 나라가 되였으며 문맹자가 없는 나라로 되였다.

그이께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인재의 질은 곧 교육의 질이다.

학교에서 키워내는 인재의 실력과 자질을 깊이 분석하신 그이께서는 보다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자질을 소유한 능력있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교육과목도 새로 선정해주시고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는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여기에 그이께서 콤퓨터교육에 돌려주신 은정어린 조치 한가지만 전하려고 한다.

1990년대 전반기까지만 하여도 조선에서는 콤퓨터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주체85(1996)년에 학생들에게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체득시키자면 콤퓨터에 대한 교육을 주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사회교육에서 각기 해결하여야 할 콤퓨터교육의 목표와 과업을 명확히 규정해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수천만금을 아끼지 않으시고

콤퓨터교육설비를 마련해서 전국의 대학들과 중학교들에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급속히 늘어나는 프로그람기술자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0대의 재능있는 프로그람기술자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의하여 조선에서 콤퓨터교육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속에서 자라난 젊은 프로그람기술자들이 지능기술의 대결장이라고 하는 세계바둑프로그람선수권대회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을 누르고 단연 1등을 하는 실례도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뛰여난 재능과 소질을 가진 어린이들을 정연한 교육체계에 따라 훌륭히 키우도록 하시였다.

인간의 재능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기름진 땅도 다루지 않으면 열매를 주지 않는것처럼 지혜도 키워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조선에는 어린이들속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재능과 소질을 전면적으로 찾아내고 키우기 위한 정연한 교육체계가 서있으며 뛰여난 수재들을 키워내는 사업이 중시되고있다.

예술분야에 뛰여난 소질을 가진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일반교육과 함께 전문교육을 동시에 받고있다.

오늘 조선에는 초등교육부문만아니라 대학들에도 수재교육의 계승성을 옳게 보장하고 완성하도록 정연한 체계가 세워져있다.

그리하여 7살에 국제어린이그림현상모집에서 1등을 한 어린이, 피아노경연에서 1등을 한 어린이, 7살에 세계아마츄어녀자바둑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나라 성인선수들을 누르고 특별상을 받은 《조선의 천재소녀》, 국제수학올림픽에서 여러차례 입선한 평양제1중학교의 나어린 수학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꼬마화가, 꼬마서예가, 꼬마음악가, 꼬마수학자들이 자라나 사람들을 기쁘게 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의 정치는 다음으로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 표현되였다.

조선인민이 남부럽지 않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전에는 발편잠을 잘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경제문화생활로부터 병치료와 건강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을 다 육친의 정으로 돌보아주시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풀어나가시였다. 공장에 가시면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정형부터 알아보시고 생산정형을 료해하시며 농촌에 가시면 농장원들의 살림살이형편부터 알아보시고 영농사업정형을 알아보시는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를 찾으시면 병사들의 생활정형부터 알아보시기 위하여 먼저 병실과 식당부터 돌아보시고 찬바람부는 고지에 오르시여서는 초병들의 솜옷두터이며 신발의 보온상태부터 가늠해보군 하시였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첫 순서는 인민생활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을 건설하여도 그 규모와 생산액이 아니라 인민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대상인가 하는것부터 헤아려보시고 그 중요성과 순차성을 규정해주시였다.

언제나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풀어나가시는 그이의 사랑과 은정은 사업보고에 대한 일화에도 깃들어있다.

그이의 하루사업은 보통 사업보고를 보시는것으로부터 시작되군 하였다. 일군들은 초기에 1.정치, 2.경제, 3.문화, 4.군사, 5.대외관계의 순서로 사업보고를 작성하여 드리였다.

그런데 어느날 한 지방에서 생활필수품 한가지가 떨어졌다는 자료가 제기되였는데 이 자료가 사업보고의 맨 마지막자리에 놓이게 되였다.

그날 사업보고를 보시던 그이께서는 해당 일군을 찾으시여 사람들의 생활에서 한시도 떨어져서는 안될 필수품이 떨어졌는데 어째서 사업보고의 맨 마지막에 반영했는가고 나무람하시며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 인민들의 리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그것이 큰것이건

작은것이건 관계없이 사업보고의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인민의 리익부터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문제부터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들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 하는것을 인민생활향상의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인민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전체 인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것은 원래 《부익부》, 《빈익빈》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사회를 부정하고 출현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960년대에 3:1이였던 부자와 가난한 사람사이의 수입률차이가 1990년대에는 61:1로 급증하였다고 한다.

미국잡지 《뉴 리퍼블릭》은 이러한 현상을 놓고 《현재 미국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2대의 승강기가 있다. 그 하나는 부자들의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것이다. 부자들이 타는 승강기는 우로만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승강기는 아래로만 내려가고있다. 공통점은 두 승강기의 속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빨라지고있는것이다.》라고 썼다.

이것은 미국사회,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의 일단을 보여주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정권과 생산수단이 인민대중의 소유로 되여있기때문에 사회적불평등을 낳는 사회적기초가 없다.

하지만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다고 하여도 온 나라 인민들이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게 하는 사업이 저절로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민을 위한 참다운 사랑의 정치가 펼쳐질 때 실현될수 있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로동생활에서 평등하고 물질생활에서도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있다.

사회적인간이 향유해야 할 로동의 권리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의 창조적능력에 맞게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와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조선인민은 누구나 나이가 되면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으므로 직업의 걱정을 모른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로동에 대하여서도 그 량과 질에 따라 누구나 차별없이 꼭같은 보수를 받는다.

어느해 늦가을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등대섬사람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한 일군을 제일 먼곳에 있는 등대섬에 보내여 등대원들의 생활을 알아보게 하시였다.

일군은 갔다와서 등대원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드리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래도 섬인데 륙지갈기야 하겠는가고 하시며 음료수는 어떻게 해결하고 륙지에는 어떻게 드나들며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는가고 세심히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음료수의 부족을 모르게 큰 물탕크를 만들어놓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비보장대책도 세워주시고 발동선이 한척이라는것을 아시고는 갑자기 환자가 생겨도 그렇고 예비선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배를 한척 더 주도록 하시였으며 섬생활이 적적할것이라고 하시며 갖가지 악기들과 좋은 TV를 보내주고 등대섬사람들이 평양구경도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런 사랑과 은정이 모든 등대섬들에 베풀어졌다.

조선인민은 이러한 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무료의무교육과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시킬 걱정, 병나도 치료받을 걱정을 모르며 국가가 무료로 주는 주택에서 세금이란 말조차 모르고 살아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0년대 중엽 어느날 지방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가 건설을 많이 했지만 아직 낡은 집들이 있고 단칸집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언제면 우리 인민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다 지어주겠는가고 늘 생각한다고 하시였다.

그때 한 일군이 아직 세계적으로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나라는 없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남들이 그런데 우리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자포자기이며 그만하면 괜찮다고 위안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고자대라고 하시면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혁명가의 립장과는 인연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다 현대적인 살림집을 쓰고 살게 하자면 아직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당이 결심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살림집건설구상은 며칠후 현지지도의 길로 달리는 렬차칸안의 협의회에서 토의되였으며 평양시뿐아니라 도소재지와 군소재지, 로동자구와 농촌들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해마다 수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할데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각 지방에 씨리카트벽돌공장을 비롯한 건재공장들이 일떠서고 주택건설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져 수만세대의 살림집들이 건설되였다.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가 빠리를 건설하는데 300년, 뽀르뚜갈이 리스봉을 건설하는데 200년, 로씨야가 뻬쩨르부르그를 건설하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런데 1970년대후반기부터 1990년대초에 이르는 기간에 조선에는 평양시에만도 광복거리, 통일거리, 문수거리 등 옹근 하나의 도시와 맞먹을만 한 거리들이 일떠섰으며 전국의 산골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아담하고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앉았다.

그 모든 주택들은 인민생활에 편리하게 설계되여있다.

농촌문화주택을 보아도 살림방 3칸에 넓은 부엌과 전실, 목욕탕, 위생실이 있고 밖으로는 창고와 집짐승우리가 있다.

어느해 봄에 탐방기자로서 조선을 자유취재하려왔던 일본의 한 신문사 외신보도부 차장은 어느날 저녁 불의에 한 영예군인의 집을 찾은적이 있었다.《불쌍한 사람》의 생활을 취재하려 했던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의 행복하고 랑만적인 모습에 격동되여 생활정형

을 파고들던 그는 집이 몇㎡인가고 물었다.
한 100㎡될거라는 집주인의 대답이 미덥지 못하여 기자는 제손으로 집의 면적을 재여보았다.
그리고나서 그는 흥분된 어조로 100㎡가 아니라 110㎡라고 하면서 일본에서는 평범한 근로자가 이런 넓은 집에서 산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말로만 해서는 일본사람들이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집의 매 방들을 돌아가며 사진기에 담았다.
지금 조선에서는 평양시에 10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으며 지방들에서도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모든 살림집들은 새로 건설된 만수대지구살림집들, 창전거리살림집들처럼 넓고 편리하며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게 현대적으로 건설되고있으며 무상으로 배정되고있다.
날이 갈수록 조선인민은 누구나 다 더 현대적인 살림집들에서 보다 행복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조선에서는 모든 인민이 자기의 담당의사를 가지고있으며 병나도 치료받을 걱정이 없이 산다.
무병장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것이며 예로부터 생명을 지켜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고 하였다.
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지켜주는 일은 인정깊은 한 개인이 할수도 있지만 온 나라 인민의 건강과 장수는 한 개인의 인정만으로는 실현할수 없다.
그것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령도자의 사랑의 정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조선에서는 무상치료제에 의하여 진단으로부터 치료, 약값에 이르기까지 지어는 입원치료와 료양치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무상치료여서 누구나 병나도 치료받을 걱정을 하지 않는다.
어느해인가 지방의 한 병원에 뜻밖의 일로 사경에 처한 한 청년광부가 실려왔다. 그는 전신타박에 뇌좌상으로 의식이 없었다. 너무도 치명상이여서 누구도 손을 댈념을 못하고있었다. 광부의

누이조차도 동생의 소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광산일군들과 동무들에게 동생의 몫까지 일을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고개를 돌리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즉시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중앙에서 의사들을 파견하여 구급수술을 하게 하시고 직승기를 보내시여 환자를 평양으로 후송하도록 하시였다. 비행도중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직승기가 요동치자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시키도록 하시였으며 치료실을 새로 꾸린 대형비행기를 보내주시여 환자를 옮겨태워 도중치료를 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평양비행장에는 위생차를 대기시키고 병원에는 환자를 받을 준비를 갖추도록 하시였다.

한 평범한 로동자의 생명을 소생시키기 위해 이처럼 빈틈없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를 위해 원사, 교수, 박사들이 동원되고 최신실험설비들과 치료설비들이 가동하였으며 많은 피와 고가약들이 투입되였다.

무상치료제가 실시되는 조선에서는 그 모든것이 무상이였다.

그는 10여일만에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그후 치료를 계속 받고 완쾌되여 자기의 초소에 다시 서게 되였다.

무상치료제도는 조선에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 마련된것이 아니다.

조선의 무상치료제는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것은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억만금보다 더 귀중하다고, 사람이 있고서야 돈도 있다고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랑의 정치의 산물이다.

조선의 보건분야에서는 예방의학적방침을 기본방침으로 내세우고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있다.

예방의학적방침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움으로써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마음껏 벌리도록 하는 적극적인 건강보호방침이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예방의학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주민건강관리제도이다.

의사담당구역제에 의하여 의사들이 주민들속에 들어가 세대별로, 사람별로 건강카드를 만들어놓고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건강상태를 알아보면서 예방대책을 세워주기도 하고 본인도 모르고 지내는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대책도 세워준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태여나면 담당의사를 가지게 되며 그의 일상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조국을 방문하였던 한 해외교포는 의사담당제라는 말이 리해가 되지 않아 현장에 가서 담당의사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 돌아갔다.

그는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사실이였다.… 나이의 로소나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이북의 민중은 복되게도 〈주치의사〉를 가지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조선인민은 물질생활에서 고르롭고 평등하게 살면서 건강장수를 하고있을뿐아니라 고상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리며 살고있다.

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져 다채로운 예술의 걸작들이 창조되고있는 조선에는 이르는곳마다에 극장과 영화관, 문화회관들이 건설되여있으며 도처에 아름다운 공원, 유원지들이 꾸려지고 명승지마다에 휴양소들이 꾸려져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가지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락천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베푸신 믿음과 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수령, 당, 군대, 인민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굳게 결속되여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었다.

믿음과 사랑으로 엮어진 조선의 일심단결,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과도 같이 굳게 결속된 여기에 조선의 참모습이 있으며 끝없이 번영하는 조선의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 있다.

2. 화목한 대가정의 륜리

가정의 화목은 그 가정의 륜리가 어떠한가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된다.

일심단결된 조선의 화목한 대가정에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집단과 개인, 개인과 개인사이에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륜리가 작용한다.

1) 혁명적동지애와 의리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는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결합시키는 가장 위력한 작용을 한다.

조선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였고 조선인민모두가 사랑하며 정담아 부르는 《동지애의 노래》가 있다.

가는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금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네

돌우에 피여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네

이 노래는 그이께서 몸소 지도하시여 창작된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이다.

노래에는 그이의 사상적신조,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철학이 담겨져있다.

화목한 대가정과도 같이 수령, 당, 군대, 인민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룬 조선의 일심단결은 혁명적동지애의 결정체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적동지애는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며 동지를 위해서 모든것을 바치는 자기희생정신이고 끝없는 헌신성이다.

혁명적동지애는 사랑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한 사랑이다.

사랑에는 부부간의 사랑, 부모자식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친우들사이의 사랑, 동지들사이의 사랑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 여러가지 사랑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사랑이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이다.

동지라고 할 때 그것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하는 전우를 말한다.

혁명의 한길에서 고난과 시련도 함께 이겨내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생사운명을 같이하는것이 혁명동지이다.

혁명의 길에서는 동지보다 더 가깝고 귀중한 사람이 없다.

부모와 형제, 부부간의 사랑도 동지적사랑으로 되여야 참다운 사랑으로 된다.

참다운 동지애란 어떤것인가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동지관을 통하여 체험할수 있다.

그분들께서는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 할 사람은 오직 동지밖에 없다, 동지는 잃기는 쉽지만 얻기는 힘들다, 동지를 위하여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수 있다, 동지는 혁명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고 밑천이다, 한번 손을 잡으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것이 동지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다 혁명동지로 대하시며 뜨거운 동지애를 베푸시였다.

그이의 동지애의 세계는 동지를 자신처럼 믿고 동지를 위함이라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든것을 바치시는 그런 숭고한 세계였다.

그이께서 중병으로 입원한 한 환자를 찾아가신 일이 있었다.

그이를 뵈옵는 순간 환자는 너무도 반가와 침상에서 일어나 달려나오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기 병이 전염성을 띤것이여서 그이를 몸가까이 모실수 없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며 돌아가주시기를 말씀드리자 그에게 가까이 가신 그이께서는 그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어깨를 쓸어주시며 그러니 동무는 나를 동지의 아픔보다 제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 작정인가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시며 그의 병상태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치료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원래 혁명적동지애는 준엄한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함으로써 간직하게 되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다.

믿어주고 내세워주고 잘못된 길을 걸으면 바른길로 이끌어주고 아픔이 생기면 함께 나누고 동지를 위함이라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는 그이의 동지애를 일군들과 온 나라 인민이 따라배워 조선은 동지애가 넘치는 나라, 모든 인민이 일심단결된 화목한 대가정으로 되였다.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조선의 일심단결은 혁명적동지애의 결정체, 사랑과 헌신의 결정체인것이다.

조선의 일심단결은 혁명적동지애와 함께 혁명적의리의 결정체이다.

일반적으로 의리라고 하면 사회적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속에서 살면서 집단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응당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의리라고 한다.

사람의 한생은 결코 고립무원하게 걷는 인생행로가 아니라 이렇

게나 저렇게나 사회적집단과 운명을 같이하는 한생이며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의리는 부모와 자식들사이에 그리고 이웃들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적의무와 도리로서 인간생활의 어길수 없는 륜리로 되여왔다.

예로부터 어려운 사람을 물질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사경에 이른 목숨을 구원해준 사람을 은인이라고 부르며 평생을 두고 그 은혜에 성심성의로 보답하는것을 인간의 미덕, 인간의 의리로 일러왔다.

혁명적의리는 이러한 생활세태적인 인정과는 달리 동지적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사람들사이의 가장 숭고한 의리로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집단과 동지의 믿음과 사랑에 기어이 보답하는 혁명적량심에 기초를 둔 의리이다.

집단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기초하여 자신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집단을 위하여 서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는 여기에 혁명적의리의 진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사람이 의리에 충실하는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의리로 하여 인간은 숭고한 존재로 되고 의리로 하여 인간생활은 백화만발한 화원처럼 아름다와지는것입니다.》

혁명적의리는 사회의 전체 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것을 도덕적의무로 여기게 하여 서로의 화목을 이룩하게 한다.

조선에서는 모든 인민들이 자기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참된 삶을 안겨준 수령을 경모하고 받들어나가는것을 숭고한 도덕의리로 여긴다.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이 인민의 심장속에 신념화되여 마음의 기둥으로 튼튼히 자리잡고 모든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은 일심단결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되였다.

참으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는 일심단결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게 하는 숭고한 륜리이다.

2)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조선의 화목한 대가정에는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륜리와 함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륜리가 지배한다.

사람은 언제나 대중과 집단속에서 살며 활동하게 된다.

여기로부터 사람들앞에는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자기의 운명개척과 관련되는 초보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로 되며 사회적집단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집단과 개인과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주의적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집단주의적관점이다.

개인주의적관점은 사회와 집단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침해하는것도 서슴지 않으며 개인의 탐욕과 치부에 만족을 느끼며 산다.

그러나 집단주의적관점은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집단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단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사는것을 더없는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게 된다.

그렇다면 어느 관점이 집단과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으로 되며 사회의 통일단결에 이바지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적관점이 아니라 집단주의적관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집단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다.》

집단주의적관점은 언제나 사고와 실천에서 집단의 리익을 우선시한다.

사회적집단은 개인들의 유기적인 결합체인것만큼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은 밀접히 통일되여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집단과 그 성원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두 관계 즉 개인이 집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관계와 집단이 개인의 리익을 보장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집단주의적관점은 바로 개인이 집단을 위하는것과 집단이 개인을 위하는 두 면의 유기적인 통일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옳바른 관점이다.

이 집단주의적관점에서 보는 집단과 개인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륜리는 개별적사람들이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게 함으로써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화목한 대가정으로 되게 한다.

사람에게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 두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호상 의존제약하는 관계는 같지 않다.

사회라는 집단이 있고서야 개별적인 사람이 있다.

사람은 사회라는 집단을 떠나서는 태여날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다 귀중한것은 개인의 리익이 아니라 집단의 리익이다.

집단의 리익은 사회적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집단성원들의 공동의 리익이며 거기에는 개인의 리익도 들어있다.

한편 개인의 리익을 놓고보면 그것은 집단의 리익에 의존되여있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떠나서 참다운 개인의 리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집단의 리익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리익도 제대로 실현될수 없다.

나라잃은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다.

나라를 남에게 빼앗긴 사람들의 가련하고 비참한 처지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조선은 일제놈들에게 나라의 자원과 문화재를 비롯하여 모든것을 빼앗겼으며 조선인민은 가장집물은 물론 나서자란 정든 고향과 부모형제 지어 성과 이름까지 빼앗겼다.

나라를 빼앗긴 처지에서 개인의 행복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조국과 민족이라는 집단이 있고서야 개인이 있으며 집단의 자주적발전이 이룩되여야 개인의 리익도 보장될수 있다.

그러므로 두 리익가운데서 마땅히 집단의 리익과 발전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여야 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리익이 집단의 리익에 복종되는 관계, 집단의 리익의 실현에 의하여 개인의 리익이 실현되는 관계가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로 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륜리는 바로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집단과 개인의 이러한 관계를 구현하고있다.

이에 대립되는것이 《각자는 자기자신만을 위하여》라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륜리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이 륜리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대립시키고 사회와 집단의 리익보다 자기 개인의 리익을 더 우선시하면서 개인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인간관계를 맺게 한다.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에서는 집단과 남을 위하여 자기 개인의 리익을 희생한다는것을 생각조차 할수 없다.

대가와 보상이 없이는 남을 위하여 복무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개인주의이다.

그래서 개인주의자들은 《각자는 자기자신만을 위하여, 신만이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든다.

신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결국 이 구호는 자기 개인의 리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뜻을 강조하는것으로 된다.

쉑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로크는 오직 자기의 리익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몸에서 살을 떼낼것을 집요하게 요구한다.

바로 이것이 개인리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다.
오늘도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는 남을 희생하는것은 물론 부모, 형제, 처자까지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륜리는 집단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보다 더 중시하며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을 중요내용으로 한다.
이 륜리가 지배하는 조선에서는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집단의 다른 성원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뿐아니라 필요하다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다.
그리하여 온 사회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과도 같이 일심단결되게 된다.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륜리도 집단주의적관점에 기초한 륜리이다.
이 륜리는 집단이 개인의 리익을 중시하게 함으로써 온 사회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게 한다.
집단주의적관점에 기초한 륜리가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륜리라고 하여 그것은 결코 집단의 리익만을 중시하고 개인의 리익을 무시하거나 침해해도 된다고 보는것이 아니다.
집단주의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도 집단주의가 집단의 리익만을 중시하고 개인의 리익, 개인의 생활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것처럼 잘못 생각한다.
특히 부르죠아륜리학자들은 마치도 집단주의가 개성의 발전을 억제하고 개인의 리익을 희생시키는것처럼 외곡되게 선전하고있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면서 집단에 속한 개인의 리익도 귀중히 여긴다.
집단에 속한 개별적성원들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사회적 집단의 존재와 발전의 필수적인 전제이다.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며 개인의 건전한 발전에 의하여

집단의 발전이 담보된다.

집단을 떠나 개인을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개인없는 집단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개별적인 사람들이 집단에 망라되는것은 집단의 보호와 방조속에 자신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살며 발전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집단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이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자신의 리익이 침해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 누구도 집단을 따르지 않게 될것이다.

이것은 집단의 존재와 발전이 개별적성원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집단의 사랑과 배려를 떠나서는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리익과 발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인의 생명과 리익도 보호하며 그 안전을 도모한다.

이것은 집단주의적관점에 기초한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륜리가 작용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에서 뚜렷이 발현되고있다.

조선에서 개인은 집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

조선에서 매 개인에 대한 집단의 사랑과 배려는 매 사람들이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참된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는데서 찾아볼수 있으며 모두가 건강하도록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을 베풀어 보살펴주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뿐만아니라 탁아소시절부터 매 개인의 소질과 재능에 관심을 돌리며 전체 아동들을 교육하는것과 함께 자기 부모들도 발견하지 못한 개별적어린이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여 교육집단과 전사회적인 관심을 높여 훌륭히 꽃피워주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래서 조선에는 재능있는 어린이들도 많고 수재교육을 받은 많은 어린이들이 자라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일터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조선에는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륜리와 함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륜리가 지배하여 일심단결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3. 화목한 대가정의 참모습

화목한 가정을 그려보느라면 자식들을 무척 사랑하면서도 참되게 이끌어주는 부드럽고 인자하면서도 엄격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부모들을 진심으로 존대하며 효성다하는 아들딸들, 화목하고 다정한 부부, 형제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서로 믿고 고무하는 마음이 부드럽게 감도는 가정에 웃음이 마를줄 모르고 위훈의 새 소식 그칠줄 모르는것이 화목한 가정의 기풍이고 모습이다.

하다면 온 나라가 일심단결을 이룩한 조선의 화목한 대가정의 참다운 모습은 어떠할것인가.

1) 그리움의 대하

그리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뜨거운 사랑이며 가를수 없고 끊을수도 없는 정의 분출이고 정서이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펼쳐져 따스한 해빛이 그늘진곳없이 비쳐주는 조선에 언제나 그리움의 대하가 넘쳐흐른다.

령도자는 인민을, 인민은 령도자를 그리는 그 마음은 참으로 뜨겁고 절절하다. 인민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령도자는 일년열두달 인민을 찾아달리고 그 그리움을 안고 인민은 령도자를 자기 집, 자기 일터에 모실 그날을 손꼽아기다린다.

(1) 인민행렬차

인민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뜨거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는 자식을 그리는 어버이심정으로 언제나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였다.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들을 찾아 천리길, 만리길을 달리시는 그이의 현지지도에 인민은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군 하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겹쌓인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동서남북으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시는곳마다에서 인민군군인들과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합숙, 살림집, 식당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며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알아보시고 한없이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여기에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그이께서 인민을 찾아 얼마나 강행군을 하시였는가를 보여주는 한두가지 사실을 전하려고 한다.

어느해 1월(조선에서 1월은 가장 추운 달이다) 북방에 있는 자강도를 찾으신 그이께서 하루에 진행하신 현지지도로정은 그야말로 눈보라강행군이였다.

전날밤 자강도당책임일군에게 래일 아침 강계시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걸어주신 그이께서는 수백리 밤길을 렬차로 달리시여 다음날 아침 7시에 강계역에 도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도착하신 즉시 렬차집무실에서 도당책임일군으로부터 실태를 보고받으시고 도의 경제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현지지도계획을 토의하시고 첫 지도단위인 북천의 띄우개식발전소로 향하시였다.

아침 9시에 이곳에 도착하신 그이께서는 맵짠 강바람을 맞으시며 강물우에 떠있는 발전소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계속하여 장강군으로 가시여서는 장강1호발전소와 산골짜기에 있는 토목식언제발전소를 보시고 장강2호발전소와 전기화된 55동주택마을, 장자산발전소를 차례로 돌아보시며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기문제를 풀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렬차와 집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던 주체 98(2009)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또다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실 의향을 표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온 나라 인민에게 강성국가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한 150일전투를 벌릴것을 호소하신 그날로부터 잠시의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오신 그이께서 잠시라도 쉬실것을 바라며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 멀고 험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시는것만은 그만두시였으면 합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나는 현지지도를 하러 떠날 때마다 인민군부대에 가면 나의 병사들이 있고 공장이나 농장에 가면 나의 인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군 한다고 하시면서 나는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멀고 험한 길을 걷는것을 커다란 긍지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또다시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께서 올해 렬차를 타고 현지지도하신 거리가 지난 10년동안 렬차행군을 하신 거리와 맞먹습니다.》

일군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을 돌보시라고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이제는 렬차를 타고 다니며 거기에서 생활하는것이 습관이 되여 그런지 렬차에 오르면 집에 온것 같이 느껴지고 반대로 집에 들어서면 려관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였다.

정오가 지나서 그이께서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간단히 요기나 하자고 하시며 검소한 점심식사를 15분도 못되는 짧은 시간에 끝내시고는 곧 어느 한 련합기업소로 떠나시였다.

그이께서 련합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였을 때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저녁녘이였다.

밤새 렬차행군을 하시고 아침 7시부터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이의 건강이 념려되여 일군들이 오늘 현지지도는 그만 끝내셨으면 좋겠다고 청을 드리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또다시 승용차에 오르시여 어둠속을 헤치시며 다음 대상인 북천3호발전소로 향하시였다.

이렇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찾아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병사들을 나의 아들딸들이라 하시며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굽이굽이 고개도 넘으시고 풍랑세찬 바다길도 헤치시며 찾아가시여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군 하시였다.

초겨울의 어느날이였다.

이날도 이른 아침부터 험한 산발을 넘나드시며 맵짠 추위도 잊으신듯 병사들을 찾아 여러 부대와 구분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신 그이께서는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숙소에 돌아오시였다.

그런데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시는듯 때늦은 저녁식사마저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고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보시며 낮에 찾아갔던 부대에서 예술공연을 준비하였다고 했는데 보지 못하고왔으니 병사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고 하시며 이제라도 가서 보아주자고 하시였다.

그날 낮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느 한 부대를 찾아주시였을 때 부대책임일군이 그이께 군인들이 예술선전대공연준비를 하였는데 꼭 보아주셨으면 하는 심정을 말씀드리였었다.

그런데 그날 일정이 매우 긴장하다보니 그이께서는 군인들의 예술선전대공연을 보아주실 시간을 좀처럼 낼수가 없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그 일이 못내 마음에 걸리시여 다시 그 부대에 가자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께 가시지 말것을 말씀드렸다. 그것은 밤이 깊은데도 있었지만 밖에서는 함박눈이 펑펑 쏟아져내리고 무릎을 치게 쌓인 눈으로 하여 길이 막혀버렸던것이다.

이제 다시 그 부대에 가자면 생눈길을 헤치며 멀고 위험한 고개들을 수없이 넘어야 했으며 그러느라면 그이께서 휴식을 하실수 없게 되기때문이였다.

그이께서는 만류하는 일군들에게 눈이 아무리 많이 내리고 밤이 깊다해도 우리는 가야 한다고, 병사들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시며 앞서시였다.

머나먼 눈길을 헤치시며 또다시 부대를 찾아오신 그이를 맞이한 병사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과 또다시 자리를 같이하는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모든 피로를 잊으신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들의 예술선전대공연을 보아주시고 공연을 잘한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한다.

사실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사랑만큼 사심이 없고 헌신적인 사랑은 없다.

손톱이 닳도록 지성을 다해 자식을 애지중지 키워주고 보살펴주는것이 부모이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것이 부모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모의 사랑을 따를만한 자식이 없다고 하였다.

병사들을 자신의 아들딸로 보고 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무한대한 사랑의 세계는 친부모의 사랑보다 더 뜨겁고 헌신적인것이였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더는 험한 길을 걷지 마시고 잠시라도 휴식하실것을 간청하는 일군들에게 나라고 왜 힘들 때가 없고 명절날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고싶지 않겠는가, 나도 최고사령관이기전에 인간이며 그 누구보다 생활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 인

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그 무엇보다 귀중하기때문에 개인적인 모든것을 희생하면서 쉬임없이 인민들을 위한 혁명의 길을 걸어나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병사들과 인민들이 있고 그들이 그리워, 그들의 행복을 지켜 언제나 인민행렬차를 타시였다.

초소를 다녀오신 후에도 날이 차지면 초소군인들의 건강을 물어주시고 그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헤아려주시는 그이이시였다.

어느해인가 11월에 갑자기 찬바람이 몰아치자 그이께서는 며칠전에 다녀오신 최전연부대의 지휘관을 찾으시여 초소군인들이 모두 건강한가고 물어보시며 부대의 겨울나이준비정형을 료해하시고 세심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전화를 받던 부대지휘관이 군인들이 모두 건강하여 전투임무를 잘 수행하고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초소를 다녀가신 후 군인들이 더욱 그리워한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나도 그들이 그립다고 뜨거움에 젖어 말씀하시였다.

그리움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움이 없는 사랑이란 없으며 사랑이 없는 그리움도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군인들과 인민들이 있었다.

그이께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그리움을 안으시고 그들을 찾아 멀고 험한 길을 쉬임없이 걷고 걸으신것이였다.

참으로 병사들과 인민들을 마음에 안고 사신 그이의 크나큰 사랑의 세계,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그리움의 세계는 그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것이였다.

어느해 여름 조선은 끝없는 환희와 기쁨으로 설레이고있었다.

력사적인 외국방문길에 오르시였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조국으로 돌아오신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던것이다.

이날 수도 평양의 거리는 그이를 맞이하기 위해 화려한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였고 곳곳에 환희의 꽃바다가 펼쳐졌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조국땅에 들어서신 그 길로 수도 평양이 아니라 외진 산골에 자리잡은 병사들의 초소를 찾으시였다.

너무도 크나큰 감격에 목메여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구분대 지휘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신 그이께서는 군인들의 식생활이며 문화정서생활에 대하여 하나하나 보살펴주시였다.

오래동안 헤여졌던 친자식들을 만나신듯 기뻐하시고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그이를 우러러 병사들은 솟구치는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이께서 조국을 떠나시여 외국을 방문하시는 그 나날에 자기들, 군인들과 인민들을 얼마나 그리워하시였는가에 대하여 다는 모르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외국방문의 나날에 자주 일군들에게 조국을 오래동안 떠나있으니 우리 병사들이 보고싶다고, 이제 조국에 돌아가면 먼저 우리 병사들부터 찾아보자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때마다 수행일군들은 그이께서 얼마나 병사들이 그리우시면 이런 말씀을 거듭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눈시울을 적시였다.

외국방문을 마치시고 조국을 가까이할 때에 병사들에 대한 그이의 생각은 더욱 간절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자리에서 조국을 떠나있는 기간 초소의 병사들이 보고싶었다고, 우리 병사들생각에 눈물이 다 났다고, 그래서 조국땅에 들어서자마자 동무들을 찾아왔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초소를 훌륭히 꾸려놓고 보람찬 생활을 하고있는데 대해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잘사는 중대를 돌아보니 피로가 다 풀리는것 같다고 하시며 만시름을 잊으신듯 환하게 웃으시였다.

숭고한 그리움과 사랑의 세계는 그이께서 가시는 선군장정의 길에, 그이께서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가고가시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 끝없이 펼쳐지군 하였다.

인민행렬차, 그것은 인민이 그리워 병사들이 그리워 그이께서

달리고 달리시는 사랑의 렬차였다.

인민행렬차가 달리는 곳마다에서 병사들과 인민들이 목메여 웨치는 《**김정일**장군 만세!》의 환호가 터져오르고 혁신의 불바람이 일며 기적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처럼 언제나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소박한 이야기와 현지의 구체적인 실정을 로선과 정책에 담으시였다. 그래서 그이께서 제시하시는 로선과 정책에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옳바른 방도가 제시되군 하였다.

하기에 인민들은 그 로선과 정책들을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것이였다.

이것이 수령, 당, 군대, 인민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룬 조선의 화목한 대가정의 참모습이다.

인민행렬차, 그것은 인민에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사랑의 대명사이고 그이를 그리며 사는 인민에게 생의 활력을 북돋아주는 힘의 원천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이의 로고와 헌신의 서사시를 나라의 방방곡곡에 수놓은 력사의 기록자이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추운 겨울날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시려 그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들을 찾아가시다가 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

오늘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을 찾고 또 찾으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 계신다.

(2)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친어버이사랑으로 자기들의 생활과 운명을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산다.

군대와 인민의 그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선률에 담겨 초소와 건설장, 가정과 일터마다에서 울려퍼진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가
…
가을바람 찬바람 불어올수록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

이 노래는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제가이다.

조선인민은 이 노래를 부르며 험한 최전연초소와 찬바람 부는 북방의 대지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그리면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조국보위초소를 철옹성같이 지키였다.

그리고 그이께서 잠시동안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였을 때에는 언제나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그이의 걸음걸음을 마음속으로 따르며 장군님께서 오실 날을 손꼽아기다리면서 그이께 기쁨드릴 일을 하기 위하여 애를 쓰군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외국을 방문하시는 나날은 그이를 그리며 따르는 조선인민의 깨끗한 사상감정이 더욱더 높이 발현되는 나날이였다.

그이께서 외국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알려진 순간부터 돌아오셨다는 보도가 나올 때까지 조선인민은 매일매시각 그이를 그리며 안녕을 축원하고 그이를 그리며 일하고 생활하였다.

그이께서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는동안 조선의 인민들은 누구나 서로 만나면 그이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그이를 한없이 그리워하며 안녕을 바라는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부르고 또 불렀다.

그이께서 가시는 길에 비가 내리지 않는지, 무덥지 않는지 하고 마음을 썼으며 기상수문국에는 그 나라의 날씨를 문의하는 전화들이 련일 그칠새없이 걸려오군 하였다.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그리고 모든 기관 정문들이며 복도들에는 세계지도가 걸리고 거기에는 매일 통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그이의 외국방문로정도가 화살표로 그려지군 하였고 오가는 사람들은 그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군 하였다.

뿐만아니라 온 나라 군인들과 인민들은 그이께서 돌아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일터와 마을, 거리들을 더 밝고 깨끗이 거두는데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그 순결한 마음은 남편을 따라 그이께서 돌아오실 철길을 알뜰하게 정리하는 작업에 나선 철길원의 안해의 지성에서도 그리고 거리의 화단들에 수천, 수만그루의 꽃을 새로 심어가꾼 청년대학생들의 기특한 소행에서도 표현되였다.

그이를 그리는 조선인민의 절절한 마음은 《먼 하늘가》를 비롯하여 이 기간에 창작된 수많은 노래와 시들에도 반영되였다.

그이를 그리워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들의 순결한 마음은 그이께 기쁨을 드릴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높이 발현되군 하였다.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로력적선물을 마련해드리자!》 이것이 그이께서 외국을 방문하시는 기간에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맹세였다.

어느해 여름 조선동해지구에 있는 강원도의 험준한 산속에서 큰 폭포를 새로 찾아내여 인민의 유원지로 꾸려놓고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신 그이께 기쁨을 드린 인민군군인들의 위훈도 바로 그 뜨거운 지성의 결정체이다.

그 폭포를 돌아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인민군군인들이 새로 발견한 명소이고 새 세기 첫 해에 완공했다는것을 다 알게 폭포의 자연바위에 날자를 새기라고 말씀하시였다.

외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이께 기쁨을 드릴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뜨거운 마음들은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 건설장, 농장들에서도 세차게 굽이쳤다.

조선의 이 혼연일체의 참다운 모습을 보고 일본의 한 사회계인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세계정치사는 지금까지 국가의 최고령도자가 외국방문의 나날을 보낼 때 조선인민들처럼 자기 령도자와 호흡도 숨결도 같이하고 자기 수령의 걸음걸음에 자기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며 충정다한 인민을 기록하지 못하였다.

오직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의 조국, 조선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희한한 현실이다.》

조선인민은 엄마를 찾는 아기마냥 어느 하루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뵙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저녁이면 그이의 현지지도보도를 기다려 온 가족이 TV앞에 모여앉군 하였다.

인민들은 TV화면에서 건강하신 그이의 모습을 뵈우면 하루의 피곤을 다 잊군 하였다.

그리고 명절날, 휴식날도 없이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며 그이를 더 잘 받들어나갈 결의에 충만되군 하였다.

나어린 한 소년은 그이께서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속에서 현지지도하시는 모습을 뵙고는 다음날부터 한뜸두뜸 장갑을 떠서 건강을 바라는 편지와 함께 그이께 올리였다.

이런 이야기는 이 나라에 수없이 많다.

언제나 **김정일**동지를 뵙고싶어 오늘 조선인민은 집집마다 태양처럼 환히 웃으시는 그이의 초상화를 모시고 산다.

령도자와 인민이 뜨거운 그리움의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이것이 조선의 화목한 대가정의 참모습이며 여기에 조선의 무한대한 위력이 있다.

(3) 령도자와 인민이 주고받는 편지와 귀속말

누구인가 편지는 말소리 들리지 않는 인간의 량심의 대화라고 했다.

일심단결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조선에서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그리움,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의 정은 헤여져있을 때면 편지로, 만나면 귀속말로 뜨겁게 오간다.

이 편지와 귀속말에는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오가는 뜨거운 사랑과 믿음, 헌신적복무의 맹세가 뜨겁게 흐른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조선의 인민들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한마음, 순탄한 길에서나 시련의 길에서나 오직 한마음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받들고 따르며 가슴속깊은 사연도 숨김없이 다 편지에 아뢰군 하였다.

그이께서는 그때마다 친어버이심정으로 기쁨도 괴로움도 함께 나누시고 고무도 해주시였다.

그이께 올리는 편지에는 항일의 로투사로부터 인민군군인들과 평범한 로동자나 농민, 지식인들의 편지들도 있고 연필로 한자한자 또박또박 정성다해 쓴 소학교에 갓 입학한 나어린 학생의 편지도 있었다.

남조선에서 공화국으로 온 의거자의 편지도 있고 남편을 따라 조선에 온 외국인녀성들의 편지도 있었다.

그이께 올린 편지들에는 지나온 생활경위와 직업, 성별과 나이,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달라도 자기들에게 행복하고 참다운 삶을 안겨준 그이만을 믿고 따를 맹세와 그이의 건강을 절절히 바라는 내용들로 충만되여있었다.

여기에 그이께 올린 편지들중에서 몇가지를 소개한다.

《장군님, 수령님께서 안계시는 지금 역경을 헤치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장군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이니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장군님, 고난의 행군길을 걷는 우리 인민들때문에 너무 걱정하

지 마십시오. 우리는 배고프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이만한 난관이 무슨 큰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인민이야 불비도 헤쳐보았고 빈터우에 락원도 건설해보았는데 그쯤한것은 웃으며 넘길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평양시 대동강기슭의 한 건설장에서 일하는 로동자가 그이께 올린 편지의 한구절이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광풍이 불어오고 하늘땅이 열백번 뒤집혀진다 하여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최고사령관동지와 운명을 같이하겠습니다.…

만약 준엄한 시기가 닥쳐온다면 우리 군관 8형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될것이며 원쑤들을 무찌르는 결전장마다에서 〈**김정일**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목숨을 내대고 용감무쌍하게 싸울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보위하는 여덟자루의 총이 되고 여덟개의 폭탄이 되자!〉 이것이 저희들의 신념이며 맹세입니다.》

이것은 한가정의 8형제 모두가 인민군대에 입대한 후 그이께 올린 편지의 한 구절이다.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품에 안긴 한 의거자는 어부의 자식으로 태여나 배군으로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던 자기를 어엿한 대학생으로 키워준 그이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그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인민적인 정치가 베풀어질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신념으로 체득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저의 가슴속깊이에 자리잡은 그 리념, 그 진리는 저를 장군님을 따라 앞으로만 줄달음치도록 떠밀어주는 신념의 좌우명으로 되였습니다. 어떤 광풍이 몰아온대도 어떤 꾀임수와 강박이 우롱한대도 저는 장군님만을 영원히 따르며 추호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조선인남편을 따라 공화국의 품에 안긴 일본인녀성들도 오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조선로동당원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시고 자식들의 장래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그이를 친어버이로 높이 우러르며 편지를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의 편지를 일일이 보아주시고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으며 따뜻이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린 편지들에는 개별적으로, 가정적으로뿐아니라 집단적으로 올린 편지들도 있다.

그중 한 실례가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당원들이 올린 편지와 그이의 회답서한이다.

이 세포당원들은 지난 시기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으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의 길잡이가 되고 반사회주의책동의 선봉대가 되여 결국 사회주의조국을 붕괴시키고 서방나라로 물밀듯이 흘어져가는 현실을 페부로 느끼면서 사회주의조국을 잃은 지식인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의 신세가 된다는것을 절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그이가 없으면 조국도 민족도 없다는 진리를 신념으로, 의지로 간직하게 되였다.

하기에 그들은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할 결의를 담아 편지를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이 올린 편지를 받아보시고 다음과 같은 회답서한을 보내주시였다.

《2세포당원동지들에게

동지들의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나는 동지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편지를 받은 나는 힘을 더 내여 당원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할것을 확언하는바입니다.

동지적인 인사를 보내면서

김정일

1990. 11.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각계각층 인민들이 올린 수많은 편지들은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조선인민의 절절한 심정과 세상이 열백번 뒤집혀도 끝까지 그이와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조선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 인민들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당을 믿고 따르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담은 편지를 자신께 많이 보내오고있다고 하시면서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인민의 아들로서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책임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할 굳은 각오를 가지군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에서 령도자와 인민은 이처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운명공동체이다.

그이를 뵙지 못할 때는 편지로 대화를 나누고 직접 뵈올 때는 남모르는 자기의 《비밀》을 귀속말로 그이께 아뢰는 조선인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북부고산지대에 있는 대홍단군의 한 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 어디에 가시여도 인민들이 사는 형편부터 료해하시는 그이께서는 그날도 농장의 한 가정부터 찾으시였다. 그 집은 감자농사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그이의 뜻을 받들고 인민군대에서 제대되여 이곳으로 달려온 수많은 제대군인들중 한사람이 새 가정을 이루고 사는 집이였다.

아직 부모들도 다녀가지 못했는데 그이께서 먼저 찾아오신것이였다.

너무도 기뻐 어쩔줄 모르며 젊은 부부는 국가에서 지어준 아담한 새집이며 세간살이들을 그이께 하나하나 보여드리였다.

그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정방문을 마치시고 떠나시려 할 때 문득 그집 안해가 동행한 일군들이 들을세라 그이께 다가가 귀속말로 이제 몇달후에 해산을 하게 되는데 아기이름을 지어달라는 청을 드리였다

그날 저녁 그이께서는 그의 청을 잊지 않으시고 아기들이 태여

나면 그 이름을 조부모나 부모들이 짓군 하는데 청을 받았으니 지어주자고 하시며 아들을 낳으면《대홍》이라 하고 딸을 낳으면《홍단》이라 하면 어떤가고 하시였다. 제대되여 대홍단으로 달려온 이 젊은 부부의 아름다운 삶을 대를 이어 빛내여주고싶으신 어버이의 심정이 담겨져있는 이름이였다.

그이의 축복속에 오늘 대홍단군종합농장에는 수많은 대홍이와 홍단이들이 태여나 미래의 주인들로 자라나고있다.

이처럼 온 나라에 넘쳐흐르는 그리움의 대하, 이것이 수령, 당, 군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의 화목한 대가정의 참모습이다.

그 그리움의 대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잃은 오늘 조선의 방방곡곡에 더욱더 절절히 흘러넘치며 군대와 인민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서도록 떠밀어주고있다.

2) 온 나라에 차넘치는 사랑의 향기

전체 인민이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과도 같이 일심단결을 이루고 사는 조선에는 날에 날마다 전설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수많이 꽃펴나고있다.

(1) 피와 살,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조선의 군대와 인민들속에서는 남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미덕이 날에 날마다 꽃펴나고있다.

수도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남포시인민병원에 어느날 화상을 입은 5명의 환자들이 실려왔다. 그중 4명은 녀성이였다. 환자들은 전신 50%의 3도화상이였다. 환자들은 의식을 잃고 생사기로에 놓여있었다.

수도 평양의 큰 병원들에서 유능한 의사들이 파견되였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25일만에 환자들은 의식을 회복하였다.

의사협의회에서는 그들에게 피부이식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수술장밖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속에는 이 병원 의사, 간호원들은 물론 시안의 다른 병원 의료일군들과 당, 행정일군들, 대학들과 전문학교 교직원, 학생들, 휴가왔던 인민군군인들, 다른 지방 주민들과 학생들도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피와 살을 바치겠다고 나섰다.

혹시 생계유지나 돈벌이를 위해 사람의 피와 장기를 돈으로 팔고사는 나라들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어떤 보수를 바라고 온것이 아닐가 하고 잘못 생각할수 있는데 그런것이 아니다.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조선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것이여서 화상당한 그들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스스로 바치러온것이다.

5차례에 걸쳐 진행한 피부이식수술에 소속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피와 살을 바친 사람은 무려 2천여명에 달하였다.

치료를 마친 환자들은 드디여 원래의 모습으로 퇴원하였다.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있는 조선에서 그들의 치료에 쓰인 그 모든것은 물론 무상이다.

남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 지어 뼈까지 바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조선의 그 어데서나 흔히 볼수 있고 들을수 있는 일이다.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중에는 남의 자식을 위해 자기 자식을 바친 사람도 있다.

어느 한 부업수산사업소 관리위원장은 자기 딸과 사업소 종업원의 딸이 함께 물에 빠진 위급한 순간에 자기의 딸을 잃으면서도 종업원의 딸을 구원하였다.

어느해 여름 여러명의 녀학생들이 맑은 물 흐르는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있었다. 물놀이에 성수가 났던 학생 2명이 물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곳에 갔다가 빠졌다.

이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간 관리위원장은 50m정도 앞에서

딸이 머리를 솟구치며 허우적거리는것을 보았다. 관리위원장이 딸이 있는데까지 다달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살려달라는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애는 이웃에 사는 같은 기업소사람의 딸이였다. 관리위원장은 옆집 딸을 손으로 잡았다.

그 시각 관리위원장은 갑자기 물에 뛰여들어서인지 손발에 마비가 오고있었다. 두 아이를 다 살릴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먼저 옆집아이를 끌고나왔다.

이윽고 달려온 사람들이 관리위원장의 딸을 건졌으나 그는 이미 숨져있었다.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의 혈육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나 청춘도 기꺼이 바친 사람은 이 관리위원장뿐이 아니다.

꽃같은 청춘을 바쳐 사품치는 강물에서 어린이들을 구원한 농장원처녀, 걷지 못하는 학생을 몇년동안이나 업고다니며 공부를 시킨 한 소학교 녀교원, 쏜살같이 내려오는 광차에 몸을 내대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광부, 불붙는 집에 뛰여들어 질식된 동무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녀대학생…

참으로 그 수는 천으로, 만으로도 다 셀수 없다.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숭고한 희생정신은 조선인민군의 관병일치의 미풍에서도 높이 발현되고있다.

한 군관은 훈련도중 한 전사가 잘못 떨어뜨린 수류탄이 폭발하려는 순간 서슴없이 자기 몸으로 덮어 수많은 전사들을 구원하고 희생되였다.

그런가하면 조선의 서해해상에서 적들의 도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병사들이 날아오는 적탄을 몸으로 막아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치렬한 격전속에서 지휘관의 철갑모가 날아나자 한 병사는 자기가 적탄에 맞아 중상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철갑모를 벗어 지휘관에게 씌워주었다.

지휘관과 병사들 모두가 이런 희생적인 동지애로 굳게 뭉쳐 싸움으로써 그들은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저지시키고 적들에게 참패를 안길수 있었다.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조선에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현되고있는 아름다운 혁명적동지애의 미덕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만발하게 꽃펴나고있다.

(2) 친부모, 친자식이 되여

예로부터 고아라 하면 고독하고 쓸쓸하며 서글프고 불쌍하며 처량한 존재로 전해지고있다. 그래서《집없는 아이》,《방랑자》,《올리버트위스트의 모험》과 같이 불행한 고아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쓴 소설도 많이 나온것이다.

사람들은 이 소설들에서 배고파도 부모생각, 추워도 부모생각, 궂은날 마른날도 가림없이 우짖는 새소리, 피는 꽃마저 서글프고 쓸쓸하게 느껴지는것이 고아의 보편적인 심리적감정임을 알게 된다.

자나깨나 고독의 비애와 애달픈 설음, 사랑의 그리움을 안고사는 고아의 생활처럼 처량한것은 없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조차 버림을 당하는 일이 많은 착취사회,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고아들은 사실상 죽지 못하여 생명을 부지해가는 처지로서 고통과 비애의 방랑길에서 쓰라린 운명을 강요당한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친부모, 친형제가 되여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있는 사회적분위기속에서 사실상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외로움을 모르고 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온 나라에 펼쳐져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여 훌륭히 키워가는 뜨거운 인정미에 대한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많이 꽃펴나고있는것이다.

20살난 처녀의 몸으로 두 어린이의 어머니가 되여준 한 처녀방송원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방송원인 그 처녀는 부모들과 떨어져 공장합숙에서 생활하고있었는데 아버지가 평양으로 소환되게 되였다. 어느날 합숙에는 7살, 4살되는 두 아이가 들어왔다.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치의 병으로 돌아갔다. 공장에서는 그애들을 우선 합숙에서 키우기로 하였다.

이런 가슴아픈 사연을 알게 된 처녀는 그날밤 그애들의 호실로 찾아갔다.

방안에는 간식그릇이랑 놓여있었는데 4살난 동생이 엄마를 찾으며 울고있었다. 쳐녀는 애들을 한품에 다정히 껴안았다. 그날밤 두 어린이를 량옆에 껴안고 누운 처녀의 생각은 깊었다.

이 좋은 사회주의제도에서 슬픔에 잠긴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어린이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김정일**동지께서 이 사연을 아시면 얼마나 걱정하실가. 내가 이 애들의 어머니가 되고 언니가 되여주자. 이것은 사회앞에 지닌 인간의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한 처녀는 아이들을 자기 호실로 데려다가 함께 살며 그애들의 어머니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없는 이 애들을 키우는것은 의무이기 전에 량심으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한 처녀는 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한편 공장당위원회에도 찾아가 자기의 결심을 말하였다.

공장당위원회 일군은 그의 소행을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할 그를 생각하여 여기에도 당조직이 있으니 아이들 걱정은 말고 어서 아버지를 따라 평양으로 가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그는 《로동당시대에 살고있는 나는 도덕도, 의리도 없는 처녀로 살고싶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잃은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것은 동정도 희생도 아닙니다. 그 애들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얼마후 처녀는 휴가를 받고 평양의 부모들을 찾아갔다.

딸의 결심을 들은 아버지는 《네가 용쿠나. 결심하고 시작한 일이니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잘 키워라. 우리도 힘껏 도와주마.》라고 말했다.

다심한 어머니는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오만공수가 들어 오마니라고 한다는데 처녀인 네가 두 아이를 어떻게…》하며 걱정스레 딸을 바라보았다.
그때 처녀는 《어머니, 걱정마세요. 난 이제껏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버이장군님의 품에서 사는 우리는 모두가 친형제라는 말을 많이 외웠어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나도 우리 식 사회주의의 대가정의 한식구가 되여 제구실을 하겠어요.》라고 말하였다.
처녀는 그날로 어머니가 마련한 아이들의 학용품이며 음식을 챙겨가지고 공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란에 두 아이의 이름을 올리였다.
소문은 삽시에 공장과 마을에 쫙 퍼졌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일처럼 도와나섰다.
그의 방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애들을 데려다 키운 때로부터 6년세월이 흘렀다.
처녀의 부모들은 사위감을 골라놓고 딸이 시집가기를 재촉했다.
그러나 처녀는 부모들이 보아준 총각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키우는것을 리해해주고 도와준 제대군인총각과 결혼하였다.
혁명의 미래를 안아키우는 한길에서 굳게 결합된 자랑스러운 청년들의 소행을 두고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공장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양지바른 산기슭에 아담한 새집을 세워주었다.
방송원처녀의 아름다운 소행은 온 나라에 퍼져 부모없는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친혈육처럼 돌봐주는 아름다운 소행이 도처에서 꽃펴났다.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부모잃은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키우는 아름다운 소행은 계속 늘어났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키우고있는 사람

들중에는 당 및 행정일군도, 인민군대 군관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모잃은 아이들을 맡아 친자식처럼 키우고있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매 사람들에게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군 하시였다.

30여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평양시의 한 녀성은 모성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조선에 꽃피고있는 부모잃은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기풍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있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제놈들에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아동단학교에 데려다가 키우시였으며 해방후에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세우시고 혁명렬사유자녀들을 데려다 키우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전쟁시기에도 부모잃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전국에 애육원을 내오고 거기에서 전재고아들을 키우도록 하시였으며 몸소 고아들을 최고사령부에 데려다가 키우기도 하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뜻을 모든 간부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웠다.

전쟁시기와 전후에 많은 녀성들이 전재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웠다. 조선의 수많은 녀성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되여 그들을 따뜻이 품어주고있다.

부모잃은 아이들을 안아키운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여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지만 사실 저의 그 정성은 위대한 어버이품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 어린이들이 안겨사는 품은 우리 인민의 어버이이신 **김정일**동지의 끝없는 믿음과 사랑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의 전재고아들을 맡아키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인연을 맺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벌가리아의 니끼포로바녀성은 조선의 모성영웅들의 미풍에 접하고는 감동을 금치 못하며 세상에 인도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조선의 녀성들이 발휘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다, 이런 녀성들을 키워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경의를 표한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옳은 말이다.
화목한 대가정의 어버이이신 **김정일**동지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그 품속에 안겨사는 조선녀성들도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될수 있은것이며 위대한 어버이의 그 뜨겁고 열렬한 사랑의 품이 있어 조선의 부모잃은 아이들은 마음의 구김살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었던것이다.
조선에는 또한 자식없는 로인들을 다른 집 자식들이 친부모로 모시고 사는 사회적기풍이 흘러넘치고있다.
수많은 이야기들중에서 한가지만 여기에 적는다.
어느 한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던 한 처녀는 졸업을 앞둔 어느날 청춘시절에 조국보위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운 나이 70이 다 된 로병부부가 자식이 없이 지낸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 집 할머니는 전쟁시기 부상당하여 하반신을 쓰지 못하여 자식을 보지 못하였다. 그 집 할아버지는 그런 안해를 사랑하고 위해주며 한생을 변함없이 살아왔다. 할아버지는 고향이 남조선이고 할머니는 전쟁시기 부모를 잃어서 그들에게는 가까운 친척도 없었다.
녀대학생은 로병부부의 딸이 될것을 결심하고 그들을 찾아가 자기의 진정을 터놓았다. 그러나 로병부부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달라고 하였다. 그들부부는 비록 슬하에 자식은 없지만 이웃들이 각근히 돌봐주고 또 나이가 들어가는 요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끔 부모로 모시겠다고 찾아왔었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렇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녀가신 이 뜻깊은 고장을 뜨고싶지 않아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럴수록 처녀의 마음속에는 이 훌륭한 로병들을 더 잘 위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굳어지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처녀의 부모들과 오빠들도 적극 찬성해나섰다.

어머니는 다만 외동딸이며 집안의 막내로 고이 자란 그가 훌륭한 로병내외의 딸구실을 제대로 하겠는지 하는 걱정을 하였다.

처녀는 그런 어머니에게 《어머니, 곧은 나무들속에서는 굽은 나무도 곧게 자란다질 않나요. 로병아버님, 어머님의 훌륭한 정신을 배우며 지성을 다해 모시겠어요.》라고 말하였다.

그해 가을 대학을 졸업한 처녀는 어머니와 함께 로병부부의 집을 찾아갔다.

처녀를 되돌려보내고도 은근히 기다리던 로인부부는 그를 뜨거운 눈물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되여 처녀는 로병부부의 딸이 되였고 로병내외는 대학을 졸업한 처녀를 친딸로 맞이하게 되였다.

이렇듯 아름다운 소행은 로병들을 혁명의 공로자로, 보배로 귀중히 여기시고 극진히 돌보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닮아가고있는 조선의 인민들속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 일이다.

전사자가족인 한 할머니를 모셔다 16년동안이나 친부모로 모시고 사는 녀성, 자식들이 없어 양로원에 가있는 로인들을 집에 모셔다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소행들이 날에 날마다 무수히 꽃펴나고있다.

이런 아름다운 소행들이 도처에 만발하여 조선에는 모두가 한가정과 같은 화목한 분위기가 온 사회에 꽉 차넘치고있다.

(3) 영예군인과 한생을

어느 나라에나 군대가 있고 부상을 당하여 제대된 이전날의 군인이 있기마련이다.

그들의 운명은 해당 나라의 사회제도에 따라 서로 달라지는것을 볼수 있다.

영국작가 레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의 소설 《채털리부인의 련인》에서는 명문가출신의 녀성이 전장에서 불구의 몸이 되여 돌아온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치정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응당한 일로, 《인간본성》의 자연스러운 행위로 미화하여 그렸는데 이 소설이 자본주의세계에서 걸작으로 례찬되였다.

이 소설에서처럼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군대생활에서 부상을 입고 제대되여 돌아오면 한생을 같이하기로 약속했던 련인도 못본듯이 돌아서버리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그러나 오늘 조선에서는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그들을 영예군인이라고 부르며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떠받들며 생활상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이웃이 돕고 온 마을, 온 나라가 보살펴주고있다.

특히 꽃다운 처녀들이 앞을 다투어 영예군인총각들의 안해가 되고 훌륭한 청년들이 영예군인처녀들의 남편이 되여 자기들의 깨끗한 량심과 애정을 쏟아부어주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많이 꽃펴나고있다.

전후에 내각사무국에서 일하던 한 처녀가 전쟁시기 가슴과 척추에 관통상을 입어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영예군인과 가정을 이루고 수십년세월 그의 손발이 되여 보살펴준 소행이 널리 소개되였다. 그는 남편이 침상에서도 불굴의 투지로 수백여편의 시와 가사들을 써서 영예군인시인으로,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게 하였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 조선의 그 어디에서나 들을수 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중에는 휴양갔다가 그 마을에 하반신이 마비된 영예군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와 일생을 약속한 수도의 처녀도 있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영예군인처녀를 안해로 맞아들이고 수십년세월 극진히 돌보아주며 전국의 크고작은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해준 청년도 있으며 딸 4명을 모두 영예군인들에게 시집보낸 부모도 있다.

영예군인들과 가정을 이루고 한생을 돌보아주는것을 혁명적의리로, 크나큰 긍지로 여기고있는 조선의 청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향인 유서깊은 회령땅의 네

처녀에 대한 이야기에도 깃들어있다.

어느해 가을 회령의 한 공장처녀들이 특류영예군인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간 일이 있었다.

그런데 영예군인과 나란히 앉은 처녀는 회령처녀가 아니라 다른 고장에서 온 처녀였다. 왜 우리 회령처녀들속에서는 저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하겠다고 선뜻 나선 처녀가 없었는가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자책감을 금치 못해하며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그들은 우리도 영예군인과 가정을 이루자고 하면서 서로서로 마음을 터쳐놓았다.

그리하여 그들 4명의 처녀들은 멀리에 있는 영예군인료양소에 찾아가 특류영예군인들과 가정을 이루고 회령땅에서 청춘의 삶을 꽃피워나가게 되였다.

그들의 남편들은 하반신마비로 침상에 누워있었지만 젊은 안해들은 언제나 가정에 웃음꽃을 피우며 영예군인남편들의 건강을 위하여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그들의 뜨거운 지성에 감동되여 병원의 의사들도 적극 도와나섰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는 말이 있듯이 안해들의 지극한 정성이 꽃으로 피여 마침내 마비되였던 영예군인들의 하반신 신경이 살아나 침상을 털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조선에서 처녀, 총각들이 영예군인총각, 처녀들과 결혼하는것은 너무도 평범한 일로 되고있다.

남편이나 안해를 태운 삼륜차를 밀며 산책길에 나섰거나 눈잃은 영예군인의 손목을 잡고 다정하게 거리를 거니는 안해들과 남편들에게 사람들은 따뜻한 고무의 눈길을 보내준다.

극장이나 영화관, 유원지, 봉사망들에서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우선권을 양보하군 한다.

영예군인들의 집은 그들을 친혈육처럼 보살펴주는 사람들의 방문으로 언제나 흥성거린다.

위대한 령도자를 어버이로 모시고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조선에

는 이처럼 고결한 인간애, 동지애가 피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사랑의 향기를 풍기고있다.

어느 한 외국인은 사랑의 향기 넘치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두고 《신선들이 사는 리상적인 삶의 락원》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화목한 대가정과도 같이 일심단결된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에 대한 옳은 리해라고 말할수 있다.

3) 군대와 인민은 한가정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회주의조선의 참다운 모습은 군대와 인민이 서로 친혈육의 정을 나누는 군민일치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군민일치는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이며 이것은 사회의 밑뿌리로 된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서로 돕고 이끄는 군민일치의 미풍은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의 관계속에서 높이 발휘된다.

(1) 인민을 돕자

혁명군대는 인민의 아들딸로 무어진 무장대오로서 인민과 결합되고 인민에 의거해야만 자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인민의 생명재산과 행복한 생활은 인민군대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보장된다.

그래서 군대와 인민의 높은 단결력, 군민일치는 강한 국력으로 되는것이다.

사회주의조선의 인민군대는 믿음과 사랑의 정치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슬하에서 자라났고 강화발전되는 수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군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조선인민군대는 군민관계를 보장하는데서도 선도자적역할을 하고있다.

조선의 인민군대는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주체99(2010)년 여름 무더기비가 내려 여러 지역이 물에 잠긴 일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 수재민들을 구원할데 대한 비상명령을 내리시였다.

총동원된 인민군대의 대부대는 2일간에 걸쳐 수재민들을 빠짐없이 구원하여 안전한 지대로 소개하고 성의껏 도와주었다.

그 기간에 수재민들의 마을에서는 새 생명까지 태여났다.

흔히 사람들은 수해가 나면 인명피해가 나는것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의 인민군대는 수해지역에서 단 한명의 사망자도 없이 모두 구원하였을뿐아니라 오히려 태여나는 새 생명까지 구원하여 그 인원을 더욱 늘이였다.

수재민구출을 위한 명령을 내리시고 그 조건까지 다 보장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단 한명의 사망자도 없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더없이 기뻐하시며 인민군대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은 불붙는 집에 뛰여들어 인민의 생명재산을 구원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서슴없이 물속에 뛰여드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고도 자기 이름도 남기지 않는것을 례사로운 일로 여기고있다.

그중에는 생명을 바쳐 얼음구멍에 빠진 어린 학생들을 구원한 한 군관과 전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어느날 군관과 전사는 저수지쪽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이 물에 빠진것 같은 예감에 두 군인은 저수지로 달려갔

다. 아이들이 얇은 얼음장우에서 스케트를 타며 놀다가 빠진것이다. 처음에 한 학생이 빠졌는데 그를 구원하려다 두 학생이 또 빠졌던것이다.

그들은 지체없이 물속에 뛰여들었다

군인들이 아이들을 한명씩 맡아 꺼져내리는 얼음장우로 겨우 올려밀어 구원하고 안도의 숨을 쉬는데 아이들이 물속에 한 학생이 더 있다고 말하였다.

군관과 전사는 그때 이미 기운이 진해 더는 움직일수 없었으나 서로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다 둘이 함께 다시 얼음구멍에 뛰여들었다. 물에 빠진 학생을 찾은 후 서로 부축하면서 애써 얼음우로 올려미는데 성공하였으나 군인들은 온몸이 마비되여 더는 움직일수 없었다. 그들은 끝내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두 군인의 소행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가는 인민군군인들의 헌신성과 희생성, 영웅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인민군군인들속에서는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할뿐아니라 인민들의 생활을 적극 도와주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어느 한 도시에 주둔하고있는 인민군부대의 한 지휘관은 수원지수리공사가 늦어져 시민들이 물문제에서 애로를 느끼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 지휘관은 공사현장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고 부대당조직과 토의한 후 주둔지역 인민들의 물문제를 풀기 위한 전투를 조직하였다.

부대군인들로 무어진 수백명의 지원대가 공사장에 달려나가 낮에 밤을 이어가며 일하여 공사를 와닥닥 해제꼈다. 물문제가 풀리니 인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인민군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군인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그 부대지휘관이야말로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닌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인민군대는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군대인것만큼 응당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가 인민을 도와주는것은 자기의 숭고한 의무이며 본분이다, 나는 인민군대가 인민들을 잘 도와주고있다는 보고를 받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든 인민군군인들은 오늘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높은 각오로 발전소건설과 토지정리를 비롯한 경제건설에서도 큰 몫을 담당하고있으며 봄과 가을이면 협동전야에 달려나가 농사도 주인다운 립장에서 도와준다.

협동농장벌에 나간 인민군군인들은 벌에서 해와 달을 맞으며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에 서서 해제낀다.

가을이면 논판들마다에서 군인들이 흐뭇한 마음을 담아 부르는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진다.

하늘엔 따사론 해빛 넘치고
땅우엔 금나락 설레이네
농장벌 지나던 병사는
벼이삭 물결치는 소리를 듣네
아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
병사의 가슴에도 파도쳐오네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 그것은 아름다운 군민일치의 소리이고 노래이다.

인민을 성심성의로 돕는 인민군대의 이러한 정신세계는 군대와 인민을 혈연의 동지로 결합시켜 혼연일체를 이루게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발양하는데서 군대와 인민이 다같이 노력하면서도 혁명의 주력군인 인

민군대가 주체가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조선의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데서도 제일이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도 제일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여는데서도 제일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인민군대는 혁명정신에 있어서나 투쟁기풍과 인민관에 있어서나 사회의 모범으로, 거울로 되고있다.

(2) 원군기풍

오는 정에 가는 정이라는 말이 있다.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바쳐가는 인민군대를 조선인민은 《우리 아들딸》, 《우리 군대》라고 정담아 부르며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우고있으며 그들을 성심성의껏 원호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원군을 곧 조국과 인민, 자신과 후대들을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으로 여긴다.

조선인민의 원군기풍은 군사복무에 대한 관점에서 높이 발현되고있다.

주체82(1993)년에 있은 일이다.

나라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전국, 전민, 전군이 준전시상태에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하달되자 삽시에 150여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인민군대의 입대와 복대를 탄원하였다.

인민들은 군대와 함께 한 전호에서 싸우는 심정으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을 실현해가고있으며 인민군대를 원호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오늘 조선의 인민들속에서는 원군기풍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여 《우리 공장-우리 초소》, 《우리 학교-우리 초소》, 《우리 마을-우리 초소》가 곳곳에 생겨나 군대와 인민이 성심성의로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미풍이 활짝 꽃펴나고있다.

조선인민의 원군기풍이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은 어느해 적들의 도발로 서해해상전투가 벌어졌을 때 해병들에 대한 그 지역 인민들의 뜨거운 원호가 잘 보여준다.

해상전투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달리던 자동차들이 도로에서 만나는 해병들을 싣고 군항으로 방향을 돌리였고 길가던 사람들이 부두로 달려갔다.

그들속에는 전투원들에게 먹일 음식을 이고지고 온 녀인들도 많았다.

아직은 전쟁이라는 말의 참뜻을 다 알지 못하는 어린 유치원생들과 소학교 학생들까지 전투장에 나가 싸우는 아저씨들에게 노래를 불러 힘을 북돋아주겠다고 떼를 쓰며 발을 동동 굴렀다.

어느 한 마을녀성들은 해병들에게 보내는 《온 나라 어머니들의 절절한 마음 담아》라는 위문편지에 《오만한 침략자무리들을 바다에 모조리 처넣고 이기고 돌아오는 조국의 아들딸들을 온 나라 인민들은 기다립니다.》라고 썼다.

이 위문편지랑독이 끝나자 해병들은 격동된 심정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 《침략자들을 모조리 소멸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원쑤들과의 대결장으로 달려나갔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부상당한 군인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자 인민들은 저저마다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겠다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들속에는 아들잔치를 위해 마련하였던 돈으로 건강식품을 사서 가지고 온 어머니도 있었으며 종축에 쓰려고 정성들여 키운 돼지를 손수레에 싣고 온 녀성도 있었다.

평시에는 그렇게도 평범하던 인민들이 정작 전투가 벌어지자 군인들과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며 목숨도 주저없이 내댈 결사의 《전투원》들이 되였던것이다.

군사훈련에 수고하는 인민군군인들을 찾아가 친부모의 심정으로 도와주는것도 조선인민들의 전통적인 풍모이며 군사와 관련된것이

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는것이 조선인민의 미풍이다.

오늘 조선의 그 어느 마을, 어느 초소, 공장, 농장에 가도 군민의 정을 꽃피운 일화들이 많고많다.

여기에 병사들이《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는 한 농장원녀성에 대한 이야기를 적는다.

그는 조선의 그 어디에서나 만날수 있는 평범한 녀성이며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어머니이다. 그는 4명의 아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낸 후방가족이기도 하다.

그가 맏아들이 전투임무수행중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였다는 뜻밖의 소식과 함께 렬사증을 받아안았을 때였다.

언제나 강직하면서 조용한 어머니는 그날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애가 지키던 조국의 한 초소가 비여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게 된 둘째를 제형이 섰던 자리에 세웠으면 해요.》

남편은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모두 맏이가 섰던 초소에 세우자고 했다. 그리하여 그후 세 아들모두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형이 섰던 초소에 섰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돼지, 닭, 염소, 토끼 등 집짐승들을 기르기 시작하였으며 새 땅을 일구어 낟알을 거두어들이였다. 그 모든것을 고스란히 군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둔지역부대를 찾아가군 했다.

그 어머니를 군인들은 언제나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며 훈련하러 오가는 길에도, 휴가가는 길에도 늘 어머니의 집에 들려 제집처럼 정을 나누었다.

이런 어머니들은 조선의 그 어디에나 있다.

원군기풍은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려운 때에 더 높이 발양되였다.

어느 한 농장의 작업반원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식량의 일부를

나라에 바치면서 인민군대원호를 전국에 호소하였다.

이것이 불씨가 되여 온 나라 농장원들이 인민군대원호에 떨쳐나섰다.

인민들의 지성에 감동된 인민군군인들은 농촌지원사업을 더 잘할 결의를 다지였으며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나라가 어렵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꽃핀 군민일치는 순탄한 생활의 길에서 맺어진 인간의 정이 아니라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더욱 억세게 맺어진 사상정신적, 도덕의리적 뉴대이기에 비할바없이 아름답고 공고하다.

인민들속에서 발양되는 원군의 전통적미풍은 그 어디에 가서나 찾아볼수 있다.

당과 국가의 간부들로 무어진 인민대표단, 항일혁명투사들로 무어진 대표단, 내각, 성, 총국들을 비롯하여 교육, 문화,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각급 학교 학생들과 유치원어린이들, 가정부인들… 참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인민군대를 찾아간다.

그들은 위문편지도 읽어주고 후방소식도 전해주면서 원호물자도 안겨주고 기동예술선동활동도 벌린다.

그러면 군인들은 그 정성에 성실히 보답하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군 한다.

정말 인민군대에 대한 조선인민의 정성은 그지없이 지극하다.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군민일치에 관통되여있는것은 인민에 대한 사랑, 병사들과 지휘관들에 대한 사랑과 사상감정의 일치이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박사는 조선의 군민일치에 대해 이렇게 썼다.

《군민일치, 이 말은 세계정치사전에는 없는 오직 **김정일**장군님의 정치하에서만 쓰이는 이북의 독점적술어이다.

이북에서 지금 군인들이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의 노래를 부르며 풍년작황을 가꾸어가고 인민이 〈조국은 병사들의 위훈을 잊지 않으리〉라는 시를 읊으며 군을 찬양해마지

않는 현실은 군민일치가 군과 민의 마음속에 함께 젖어 만발하고있음을 보여준다.

북의 밝은 래일은 이 군민일치의 대화원속에서 풍성하게 무르익어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조선의 군민일치, 일심단결은 오늘 변함없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중심으로 더욱 굳게 이룩되였다.

조선의 군민일치는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의 완전한 일치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속에서 꽃펴난 위력한 군민일치가 있어 멸적의 서리발총창을 틀어쥔 조선인민군대의 뒤에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한 수천만인민의 대군단이 따르고있다.

그리고 천만군민이 위대한 령도자를 따른다.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일치는 지심깊이 뿌리내리고 그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거목을 푸르싱싱 자래우고있다.

4. 무궁번영할 화목한 대가정

여기에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명언의 의미를 다시 새겨본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 일이 다 잘된다는 뜻이다.

나라일도 마찬가지여서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과도 같이 일심단결되면 사회의 모든 일, 나라의 모든 일이 잘되여 무궁번영하게 된다.

사회주의강성국가에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대대손손 복락을 누리려는것이 조선인민의 념원이며 투쟁목표이다.

조선인민이 지향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어떤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우선 국력이 강한 나라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의 국력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사상과 정치, 군사와 경제분야에서의 힘이다.

사상과 정치, 군사와 경제분야의 힘이 강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없을뿐아니라 나라를 지켜낼수도 없다.

국력이 강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충분히 행사되고 고수될 때에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원만히 보장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강성국가의 국력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나갈수 있는 힘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므로 국력은 강성국가의 기본징표로 되며 강성국가를 론할 때에는 강한 국력에 대하여 론하게 된다.

국력가운데서 제일국력은 강한 군사력이다.

아무리 막강한 경제를 가지고있는 경제강국이라고 하여도 나라를 지켜낼 무적의 군사력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낼수 없고 정치강국으로 될수 없으며 사상강국, 경제강국건설도 제대로 할수 없다.

국력은 곧 군력이라고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군력에 의해 안받침되지 않는 국력이란 있을수 없다.

조선이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철저히 막아낼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과 발전된 국가경제력, 선진적인 문화 등 막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또한 모든것이 흥하는 나라이다.

모든것이 흥하는 나라라는것은 모든것이 번성하고 일이 잘되여나가는 나라 다시말하여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라는것이다.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부강발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진 나라가 바로 모든것이 흥하는 나라이다.

모든것이 흥하는 나라는 강대한 국력을 전제로 하여 발전하는 전도양양한 나라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어제날의 약소국가가 오늘날에는 강국이 될수 있고 오늘의 강국이 래일에는 약소국가로 될수 있다.

오늘은 강대한 국력을 자랑하지만 끊임없이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그 전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나라는 모든것이 흥하는 나라라고 볼수 없다.

조선이 건설하는 강성국가는 국력이 강한 나라인 동시에 그것을 토대로 하여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승승장구하는 더없이 륭성번영하는 나라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또한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이다.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산다는것은 사상문화생활에서와 물질생활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며 참된 삶을 누린다는것이

다. 아무리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는 나라라고 하여도 인민들이 실제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는 강성국가가 아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이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강국이 될수 없고 경제와 기술이 아무리 발전된 나라라고 하더라도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면 그런 나라는 강성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조선이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실제적으로 보장되여 그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하는 강성국가이다.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그 어떤 론리적인 사고에 의하여 얻어진 가정이나 희망으로만 그려보는 꿈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며 튼튼한 담보에 기초하고있다.

가장 튼튼한 담보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미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였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밝혀주신 강성국가건설의 원칙과 방도가 조선인민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다는데 있으며 수령위업계승문제가 확고히 실현된데 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으며 평양에 온 외국의 한 벗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어제 행사장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총비서와 존경하는 **김정은**대장동지를 가까이에서 뵈옵는 영광을 지니였다.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위대한 두분을 뵈옵는 특전을 누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제밤 나는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당신들이 부럽다못해 질투까지 느꼈다. 어쩌면 수령복은 조선인민에게만 차례지는것일가, 왜 하느님은 그리도 공평치 못할가, 하느님은 왜 사회주의조선에만 위대한 수령들을 보내주실가하고 생각하였다. 당신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아마 당신들은 대를 이어가며 수령복을 누리고있으니 그 행복이 얼마나 큰것인지 다는 모를것이다. 나는 당신들에게, 조선인민에게 부탁

하고싶다. 조선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그분들을 잘 모셔주기 바란다.》

오늘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진두에 서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당중앙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게 됩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로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조선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로선이다.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조선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조선인민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재적이고도 무한대한 실력으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령도자로 모시였기에 조선의 화목한 대가정은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며 영원토록 무궁번영할것이다.

세계는 머지 않아 강성국가로 솟아오른 사회주의조선을 보게 될것이며 력사는 후손만대로 무궁번영하는 조선의 화목한 대가정의 만사성을 대대손손 아로새기게 될것이다.

사회주의조선은 화목한 대가정

집필: 문정숙
편집: 탁성일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102(2013)년 6월 30일

ㄱ-35132

E-mail: 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